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지속발전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2016년 기준」

경상북도·포항시 사회조사 결과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제761003호) -

일러두기

- 경상북도·포항시 사회조사는 사회지표체계 10개 부문 중 매년 5개 부문을 선정하여 부문별 2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며 덧붙여 포항시 특성항목(6문항)에 대하여 함께 조사를 하고 있음
 - 2013, 2015년 조사부문 : 소득과 소비, 노동, 보건, 주거와 교통, 사회통합
 - 2014, 2016년 조사부문 : 가구와가족, 교육,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 2016년 경상북도·포항시 사회조사는 경상북도 1,157개 표본조사구내 23,140가구(포항시 97개 표본조사구 내 1,940가구)를 대상으로 2016. 8. 29. ~ 9. 12.(15일간) 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것임
- 각 통계표에서 지표의 성격에 따라 조사대상 연령, 조사대상 기간(시점) 등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조사대상 연령】

- 본문에서 언급되는 연령은 모두 만 연령임
- 연령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만15세 이상’ 임
- 자녀 출산계획은 ‘만50세 미만’ 임

【조사대상 기간】

- 조사대상 기간(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16. 8. 29. 현재임
 - 지난 1년 : 2015. 8. 29. ~ 2016. 8. 28.
 - 지난 1주일 : 2016. 8. 22. ~ 2016. 8. 28.

- 이 자료는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시점 등의 차이로 관련 유사 통계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정보통신과 통계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목 차 ■ □

○ 조사개요	1
- 목적, 법적근거, 부문, 시점 및 주기, 일시	
- 조사대상, 조사방법, 결과공표, 공표방법	
○ 결과요약	2
○ 결과비교	5
○ 주요결과	9
1. 가구와가족	9
(1-1 ~ 1-4)	
2. 교육	13
(2-1 ~ 2-5)	
3. 환경	18
(3-1 ~ 3-2)	
4. 안전	20
(4-1 ~ 4-9)	
5. 문화와 여가	29
(5-1 ~ 5-8)	
6. 포항시 특성항목	37
(6-1 ~ 6-5)	
○ 통계표	[별첨]

조사목적

-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조사
-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사항을 파악,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 자료 및 시정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
- 경상북도·포항시 사회조사 승인번호 제761003호

조사부문 : 공통문항 5개 부문* 35개 문항, 포항시 특성항목 6문항

- * 5개 부문 : 가구와가족, 교육,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조사시점 및 주기

- 조사시점 : 2016. 8. 29. 0시 현재
- 조사주기 : 1년

조사일시 : 2016. 8. 29. ~ 9. 12. (15일간)

조사대상

- 대상가구 : 97개 표본조사구내 1,940가구
- 응답대상 : 가구내 만15세 이상 가구원(4천여명)

조사방법 : 임시조사원을 통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결과공표 : 2017. 12.

공표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

가구안 가족

- (선호하는 가족형태) 「자녀가 있는 부부」 61.6%, 「부모님과 함께」 22.3%의 순
- (부모와 동거를 선호하는 이유) 「당연한 의무」 68.0%, 「가족간 화합」 12.8%의 순
-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한다’ 62.7%로 2년전 대비 증가
- (부모 생활비 제공) 「부모 스스로」 58.4%, 「모든 자녀」 18.9%의 순

교육

-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초등 36.5만원, 중학생 43.8만원, 고등학생 39.9만원
- (대학생 등록금 마련방법) 「학생부모 도움」 53.7%, 「장학금」 26.1%, 「대출」 11.5%의 순
- (도내 비문해 인구*) 시 전체 9.7천명, 15세이상 인구의 2.2% 차지
* 한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인구
-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초등>대학>중고등학교의 순으로 높음
- (학교교육의 효과) 효과가 있는 곳은 「지식 기술습득」(55.0%)이 가장 높고,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38.8%)은 가장 낮음

환경

- (환경 체감도) 대기, 강·하천·호수,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에 대해 전체 70%이상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
 - 체감도 평가가 높은 순 : 녹지환경>대기>강·하천·호수>토양>소음·진동
- (환경오염방지 노력)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는 비율은 2년전에 비해 감소
 - 많이 감소한 것은 ‘1회용품 미사용 노력’ 으로 14년 58.5% → 16년 49.8%
 - 증가한 것은 ‘에너지절약형제품 구입’ 으로 14년 64.0% → 16년 64.1%

안전

- (우리사회 안전상태 변화) 2년전과 비교해 변함없고 2년후에는 위험해질 것
 - ‘2년 후 위험해질 것’ 이라는 응답이 14년 32.1%→’ 16년 35.6%
- (우리사회 분야별 안전상태) 「식량안보」, 「교통이용」, 「화재」의 순으로 높음
 - 불안하다 비율이 높은 분야 「신종점염병」, 「범죄위험」, 「국가안보」의 순
- (야간보행의 두려움) 사는 동네에 야간보행이 두려운 곳이 있다 34.7%
 - 이유로 「인적 드뭄」, 「가로등 미설치」, 「우범지역」 등이 꼽힘
-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수입산/가공/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 여전히 불안함
 - ‘안전하다’ 응답비율 수입산 12.7%, 가공식품 11.3%, 유전자변형식품 6.5%
- (도민들의 평소 준법수준) ‘평소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 79.3%
- (공공질서 준수수준) ‘차레지키기’ (52.7%)로 가장 높음
 - ‘공공장소에서 정숙’ 이 29.9%로 가장 낮음
- (동네 주민과의 관계) 동네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낸다’ 40.4%

문화인 여가

- (문화향유)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 관람한 인구 비율은 54.0%
- (지역 문화예술행사 만족) ‘만족한다’ 는 비율은 69.7%
- (지역 문화예술시설 만족) ‘만족한다’ 는 비율은 20.6%
- (지역 필요 문화시설) ‘문화체육센터’ 55.5%, ‘복지회관’ 34.0%
- (여행경험) 국내여행은 57.1%, 해외여행은 17.9%
- (선호하는 여가활동) 시간,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선호하는 활동은 ‘여행’
- (생활속 시간압박) 바쁘거나 시간부족을 느낀다는 비율은 평일 64.4%, 주말 55.7%
-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유배우자 인구의 40.9%는 배우자의 직업이 있음
- (정보화의 활용) 시민의 55.8%는 소셜네트워크에 가입
- (전자상거래 활용)인터넷, 휴대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비율은 2년전 대비 증가
 - ‘홈쇼핑’ 14년 37.3% → 16년 38.0%, ‘예약’ 14년 28.2% → 16년 32.8%

포항시 특성항목

- (포항시 만족도) ‘만족한다’ 는 비율은 32.8%로 2년전 대비 증가
 - ‘만족한다’ 는 응답이 14년 23.0% →’ 16년 32.8%
 - 30대미만의 만족도(35.9%)가 가장 높음
- (출산계획) 기혼 가임여성 중 ‘출산계획이 없다’ 는 비율이 83.8%
- (출산하지않는 이유)
 -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75.5%, 「육아 및 교육비용 부담 때문에」 11.8%, 「양육문제」 5.85%의 순
- (출산지원정책 필요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89.8%
 - ‘여성’ 91.2%, ‘남성’ 88.1% 비율로 응답
- (출산지원정책 우선순위)
 - 「양육비 지원」 35.5%, 「의무교육 확대」 18.3%, 「출산비 확대 지원」 12.0%, 「보육시설 확충」 11.9%의, 「육아휴직제 확대 및 근로형태 유연화」 11.4% 순
- (일자리창출 정책) ‘기업유치확대’ (26.4%)로 가장 높음
-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2년전과 동일하게 일자리창출이 66.1%로 1순위
- (포항 미래의도시상)
 - 「첨단산업도시」 34.6%, 「해양관광도시」 32.9%, 「환경도시」 16.1% 순
 - ‘해양관광도시’ 14년 23.8% → 16년 32.9%로 가장 큰폭 증가

가구와 가족

대분류	소분류	도평균 (2016)	포항시			
			2014	2016	증감 (2년전 대비)	
선호하는 가족형태(%)	부모님과 함께	21.7	26.1	22.3	↘	-3.8
	1인가구(독신)	8.0	7.5	6.4	↘	-1.1
	유자녀부부	59.6	55.0	61.7	↗	6.7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유(%)	당연한 의무	65.1	63.9	68.0	↗	4.1
	경제적 도움	10.2	4.8	11.1	↗	6.3
	가족간 화합	17.0	21.3	12.8	↘	-8.5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와 관계	76.7	83.1	77.3	↘	-5.8
	자기부모와 관계	71.7	72.6	69.2	↘	-3.4
	전박전 가족관계	64.3	60.5	62.7	↗	2.2

교육

대분류	소분류	도평균 (2016)	포항시			
			2014	2016	증감 (2년전 대비)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미취학자녀	14.0	13.9	14.8	↗	0.9
	초등학생	35.5	36.1	36.5	≡	0.4
	중학생	39.1	46.9	43.8	↘	-3.1
	고등학생	37.0	40.1	39.9	≡	-0.2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	부모도움	58.8	50.2	53.7	↗	3.5
	대출	9.7	13.4	11.5	↘	-1.9
	자녀스스로	3.8	3.1	2.5	≡	-0.6
	장학금	26.1	20.1	26.1	↗	6
문자해독율(%)	비문해자수(천명)	73	14.7	9.7	↘	-5
	15세이상 인구(천명)	2,367	445	447	↗	2
	비문해율	3.1	3.3	2.2	↘	-1.1

환경

대분류	소분류	도평균 (2016)	포항시			
			2014	2016	증감 (2년전 대비)	
거주지 환경이 좋다는 비율(%)	대기의 질	58.0	38.6	42.3	↗	3.7
	강·하천·호수의 질	51.5	32.7	37.7	↗	5
	토양	47.7	30.7	35.4	↗	4.7
	소음, 진동	44.0	29.0	32.6	↗	3.6
	녹지환경	53.0	38.7	42.4	↗	3.7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비율(%)	대중교통 이용	47.0	52.5	47.7	↘	-4.8
	재활용품 분리배출	71.5	76.2	75.7	↔	-0.5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67.9	72.5	70.0	↘	-2.5
	합성세제사용 줄이기	53.8	61.7	53.0	↘	-8.7
	1회용품 미사용	52.8	58.5	49.8	↘	-8.7
	에너지절약형 제품구입	57.8	64.0	64.1	↔	0.1
	환경·자연보호운동 참여	24.7	32.8	24.5	↘	-8.3

안전

대분류	소분류	도평균 (2016)	포항시			
			2014	2016	증감 (2년전 대비)	
우리사회의 전반적 안전상태(%)	(2년전) 안전해졌다	16.0	17.0	14.4	↘	-2.6
	(2년후) 안전해질 것	18.6	22.2	18.6	↘	-3.6
분야별 안전상태 안전하다 비율(%)	국가안보	18.1	18.0	15.5	↘	-2.5
	자연재해	21.8	16.5	15.2	↘	-1.3
	건축물, 시설물	25.0	17.5	18.0	↔	0.5
	교통이용	26.9	20.2	22.7	↗	2.5
	화재	27.2	16.9	21.7	↗	4.8
	식량안보	38.6	25.5	33.2	↗	7.7
	정보보안	13.2	11.1	10.1	↘	-1
	신종전염병	10.5	9.5	8.3	↘	-1.2
	범죄위험	12.6	10.7	9.1	↘	-1.6
야간보행의 두려움(%)	두려운 곳이 있다	25.7	28.7	34.7	↗	6
	(원인) 가로등이 없다	35.1	37.5	36.1	↘	-1.4
	(원인) 우범지역	7.7	13.5	8.3	↘	-5.2
	(원인) 인적드물	54.5	45.7	54.0	↗	8.3

대분류	소분류	도평균 (2016)	포항시			
			2014	2016	증감 (2년전 대비)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안전하다는 비율(%)	친환경식품	59.2	47.9	51.6	↗	3.7
	국내산식품	58.5	41.6	49.8	↗	16.1
	수입산식품	16.6	6.3	12.7	↗	5.4
	가공식품	14.5	6.2	11.3	↗	5.1
	유전자변형식품	10.1	3.2	6.5	↗	3.3
준법수준 잘지킨다는 비율(%)	자신의 평소 준법수준	76.8	77.2	79.2	↗	2
	(국민) 차례지키기	57.7	53.3	52.7	↔	-0.6
	(국민) 거리환경질서	41.0	41.0	34.8	↘	-6.2
	(국민) 보행질서	42.2	42.1	35.9	↘	-6.2
	(국민) 교통질서	37.2	38.0	30.9	↘	-7.1
	(국민) 공공장소 금연	40.5	39.4	33.2	↘	-6.2
	(국민) 공공장소 정숙	34.4	35.2	29.9	↘	-5.3

문화인 여가

대분류	소분류	도평균 (2016)	포항시			
			2014	2016	증감 (2년전 대비)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관람 경험(%)	있다	45.1	53.4	54.0	↔	0.6
	만족한다	69.7	65.8	69.7	↗	3.9
문화예술행사 정보 입수방법(%)	TV	19.0	27.5	23.6	↘	-3.9
	인터넷	44.5	43.2	46.8	↗	3.6
	입소문	20.1	16.8	18.5	↗	1.7
	기타	16.4	2.1	11.2	↗	9.1
문화예술시설 만족도(%)	만족한다	23.9	23.1	20.6	↘	-2.5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 시설(%)	공연장	25.4	29.3	29.8	↔	0.5
	영화관	27.5	14.2	22.8	↗	8.6
	야외음악당, 박물관	12.4	16.7	16.1	↔	-0.6
	도서관	12.2	18.8	14.3	↘	-4.5
	복지회관	40.9	38.2	34.0	↘	-4.2
	문화체육센터	50.6	61.0	55.5	↘	-5.5
	주민자치센터	13.0	9.0	7.4	↘	-1.6
지난 1년간 여행경험(%)	국내	55.6	50.2	57.1	↗	6.9
	해외	14.0	13.0	17.9	↗	4.9

대분류	소분류	도평균 (2016)	포항시			
			2014	2016	증감 (2년전 대비)	
희망 여가활용방법(%)	여행	58.6	61.5	63.3	↗	1.8
	문화예술관람	21.8	19.4	23.0	↗	3.6
	스포츠활동	17.4	19.9	22.6	↗	2.7
	휴식	22.7	25.8	19.1	↘	-6.7
	사교관련	26.6	23.5	27.0	↗	3.5
정보화의 활용(%)	이메일	43.6	52.8	49.1	↘	-3.7
	홈페이지	8.9	15.3	11.5	↘	-3.8
	블로그	8.5	12.9	10.4	↘	-2.5
	인터넷동호회 가입	12.0	16.4	17.4	↗	1
	소셜네트워크	50.9	53.8	55.8	↗	2
전자상거래 활용(%)	TV홈쇼핑	21.2	37.3	38.0	↔	0.7
	증권	5.4	7.3	7.9	↔	0.6
	물품구매	32.8	40.6	39.5	↘	-1.1
	예약 및 예매	27.4	28.2	32.8	↗	4.6

포항시 특성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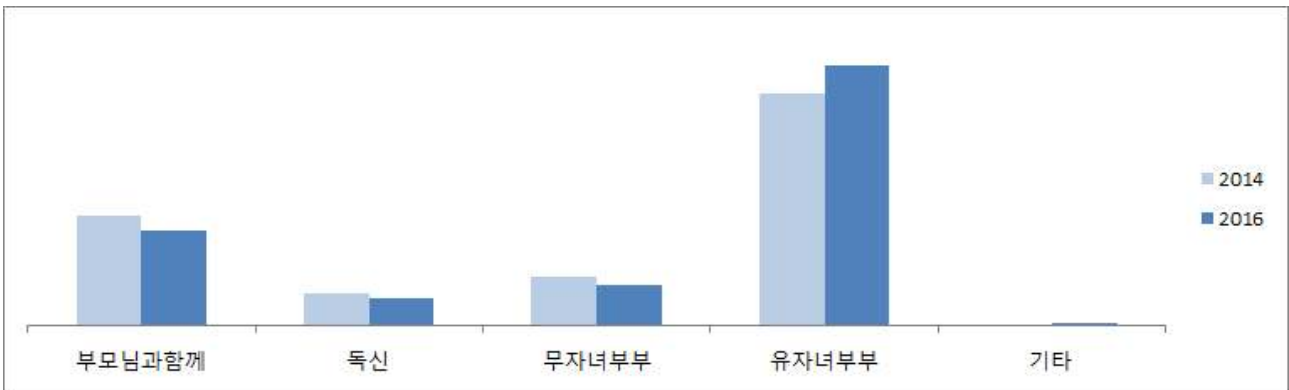
대분류	소분류	포항시			
		2014	2016	증감 (2년전 대비)	
포항시 생활 주관적 만족도(%)	만족한다	23.0	32.8	↗	9.8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기업, 정부기관, 외자유치	30.5	39.8	↗	9.3
	지역특화산업 육성	25.1	25.2	↔	0.1
	일자리창출	83.7	66.1	↘	-17.6
	규제완화	11.6	12.4	↔	0.8
포항 미래의 도시상	첨단산업도시	44.6	34.6	↘	-10
	해양관광도시	23.8	32.9	↗	9.1
	환경도시	13.8	16.1	↗	2.3
	문화예술도시	9.1	8.3	↘	-0.8

1. 가구와 가족

1-1. 선호하는 가족형태

「부모님과 함께」를 선택한 비율은 22.3%로 2년전 대비 감소한데 비해「유자녀부부」를 원하는 비율은 증가하여 독립가족에 대한 선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평소 선호하는 가족형태로 「유자녀 부부」 61.6%가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모님과 함께」 22.3%, 「무자녀부부」 9.6%, 「1인가구(독신)」 6.5%의 순
- '14년에 비해 「유자녀부부」를 선호하는 비율은 6.7%p 증가한데 비해 「부모님과 함께」를 선택한 비율은 3.8%p 감소
- 연령대별 선호하는 가족형태는, 「부모님과 함께」는 29세이하(38.6%)가 가장 높았고 「1인가구(독신)」도 29세이하(13.2%), 「유자녀부부」 30~39세(76.5%), 「무자녀부부」 60세이상(15.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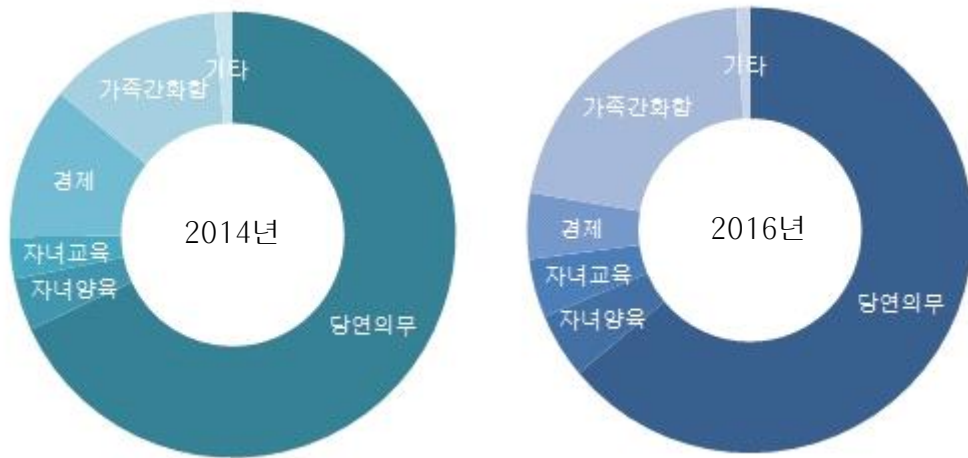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부모님과함께	1인가구(독신)	무자녀부부	유자녀부부	기타
2014	26.1	7.5	11.5	55.0	0
2016	22.3	6.5	9.6	61.6	0.03
(증감)	-3.8	-1.0	-2.0	6.7	0.03
남	26.0	5.2	8.6	60.2	0
여	19.0	7.6	10.4	62.9	0.06
29세이하	38.6	13.2	5.8	42.4	0
30-39세	14.3	6.3	3.0	76.5	0
40-49세	14.9	6.7	4.6	73.6	0.17
50-59세	19.4	4.9	10.5	65.3	0
60세이상	24.9	4.9	15.3	55.0	0

1-2.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부모와 함께」 사는 이유로 「당연한 의무(68.0%)」, 「가족간 화합(12.8%)」, 「경제적인 이유(11.1%)」의 순으로 높음

- 연령대별로 보면 「당연한 의무」는 60세이상(82.7%)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양육문제」는 30~39세(10.4%)에서, 「경제적 도움」도 30~39세(27.1%), 「가족간 화합」은 29세이하(22.9%)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년전에 비해 「당연한 의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p 증가 한데 비해 「가족간 화합」 8.6%p 감소하였고 「경제적 도움」은 6.3%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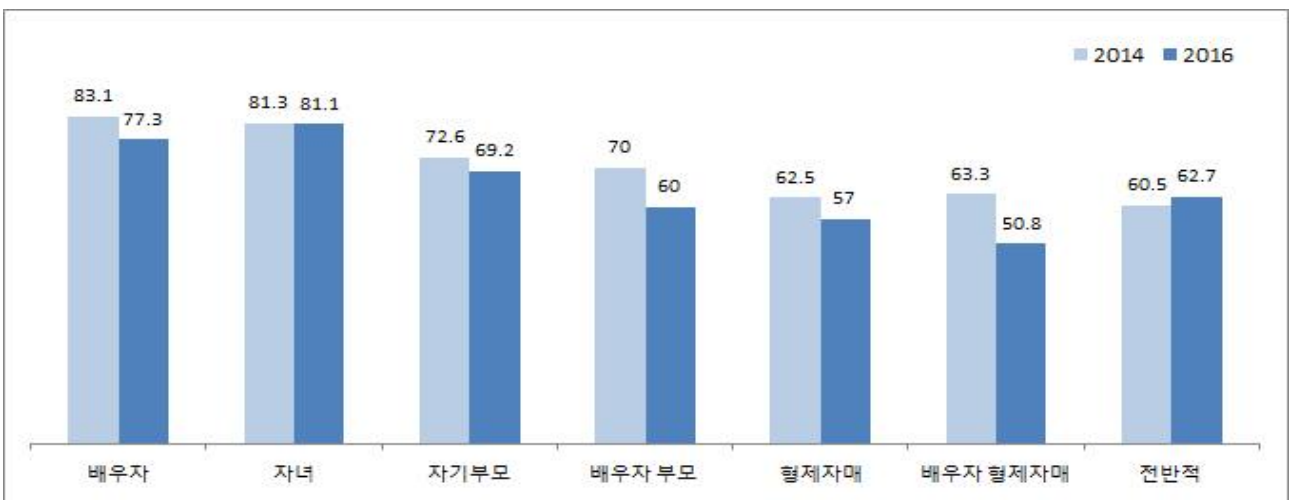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당연한의무	자녀양육문제	자녀교육효과	경제적도움	가족간화합	기타
2014	63.9	4.7	4.2	4.8	21.3	1.0
2016	68.0	3.8	3.0	11.1	12.8	1.3
(증감)	4.1	-1.0	-1.2	6.3	-8.6	0.3
남	72.2	3.4	2.1	10.0	11.6	0.7
여	63.0	4.3	4.2	12.4	14.2	2.0
29세이하	41.5	6.9	3.1	24.5	22.9	1.2
30-39세	46.7	10.4	0.0	27.1	12.6	3.3
40-49세	67.0	4.1	1.7	13.0	12.1	2.1
50-59세	78.9	2.4	5.3	4.1	9.3	0.0
60세이상	82.7	1.2	3.0	2.9	8.9	1.3

1-3.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를 합한 비율

「전반적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62.7%로 2년전에 비해 증가함

- 전반적 가족관계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한다' 비율은 감소한 반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비율은 증가함
-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족관계는 「자녀와 관계」 81.1%, 가장 낮은 관계는 「배우자 형제자매와 관계」로 50.8%로 나타남
- 「자녀와 관계」에 이어 「배우자와 관계」 77.3%, 「자기부모와 관계」 69.2%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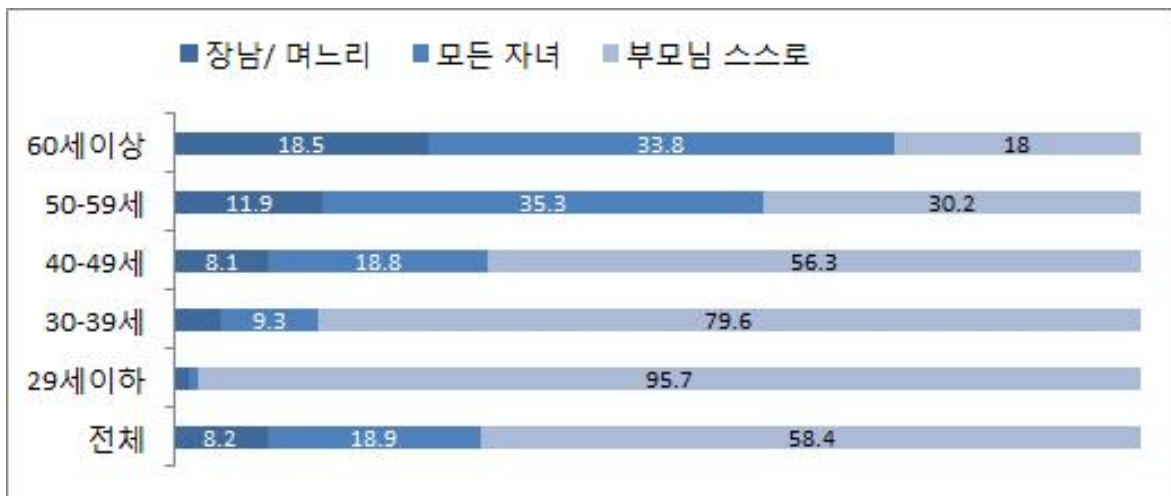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배우자와 관계	자녀와 관계	자기부모와 관계	배우자 부모와 관계	형제자매와 관계	배우자 형제자매와 관계	전반적 가족관계
2014	83.1	81.3	72.6	70	62.5	63.3	60.5
2016	77.3	81.1	69.2	60	57	50.8	62.7
(증감)	-5.8	-0.2	-3.4	-10	-5.5	-12.5	2.2
29세이하	74.15	75.5	76.3	59.8	70.9	60.5	74.4
30-39세	85.05	89.6	77.3	70.2	70.0	65.6	72.4
40-49세	83.81	88.6	69.9	62.6	60.7	56.3	70.1
50-59세	74.30	81.4	63.3	56.8	54.2	49.1	60.5
60세이상	72.70	75.6	53.0	47.7	47.1	43.8	52.5
100만원미만	76.26	72.0	58.7	52.9	49.5	45.3	47.8
100-200	71.60	71.9	56.8	49.1	46.3	40.5	48.9
200-300	77.89	80.8	67.0	59.2	50.0	52.3	59.7
300-400	82.14	87.4	71.7	64.1	58.6	56.4	66.8
400-500	88.04	86.7	73.3	66.3	59.0	55.6	75.2
500 이상	87.70	90.6	75.5	70.9	67.0	65.7	77.8

1-4. 부모 생활비 부담

현재 부모의 생활비는 「부모 스스로」 부담한다는 응답비율이 58.4%로 가장 높음

- 현재 부모가 살아 계신 경우 , 부모 생활비는 「부모님 스스로」 (58.4%) 해결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이어 「모든 자녀」 18.9%, 「장남, 며느리」 8.2%의 순
- 29세이하 연령대는 「부모님 스스로」가 95.7%를 차지하고 있고, 30~39세 응답자의 부모님도 생활비 부담을 주로 「부모님 스스로」 (79.6%)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가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되는 50~59세 응답자는 「부모님 스스로」가 30%대로 감소하는 등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모님 스스로」 비율이 감소함
- 포항은 장남, 아들, 며느리 생활비 부담 비율이 도평균값 보다 비율이 낮고, 모든 자녀, 부모님스스로 부담한다는 응답 비율 평균값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p)

구분	장남/며느리	아들/며느리	딸/사위	모든 자녀	부모님 스스로	정부/사회단체	가족과정부/사회단체	기타
도평균	8.7	8.2	1.5	17.7	57.4	2.9	3.6	0.1
포항	8.2	7.8	1.4	18.9	58.4	3.0	2.3	0.1
(비교)	도>포항	도>포항	도>포항	도<포항	도<포항	도<포항	도>포항	도=포항
29세이하	1.5	0.7	0.6	1.0	95.7	0.3	0.2	0.0
30-39세	4.5	3.9	1.2	9.3	79.6	1.5	0.1	0.0
40-49세	8.1	9.4	1.3	18.8	56.3	2.3	4.0	0.0
50-59세	11.9	12.5	1.6	35.3	30.2	4.1	4.1	0.3
60세이상	18.5	14.0	3.2	33.8	18.0	9.6	2.5	0.4

2. 교육

2-1. 월평균 사교육비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미취학자녀 14.8만원, 초등학생 36.5만원, 중학생 43.8만원, 고등학생 39.9만원으로 도평균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사교육비는 2년전에 비해 미취학자녀 0.9만원, 초등학생 0.4만원 증가한 반면 중학생 3.1만원, 고등학생은 0.2만원 감소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는 52.5만원을 지출한 반면 100만원 미만 가구는 21.1만원을 지출해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도 증가
-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은 46.1만원을 지출하는 반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가구는 23.5만원을 지출하여 약 2배의 차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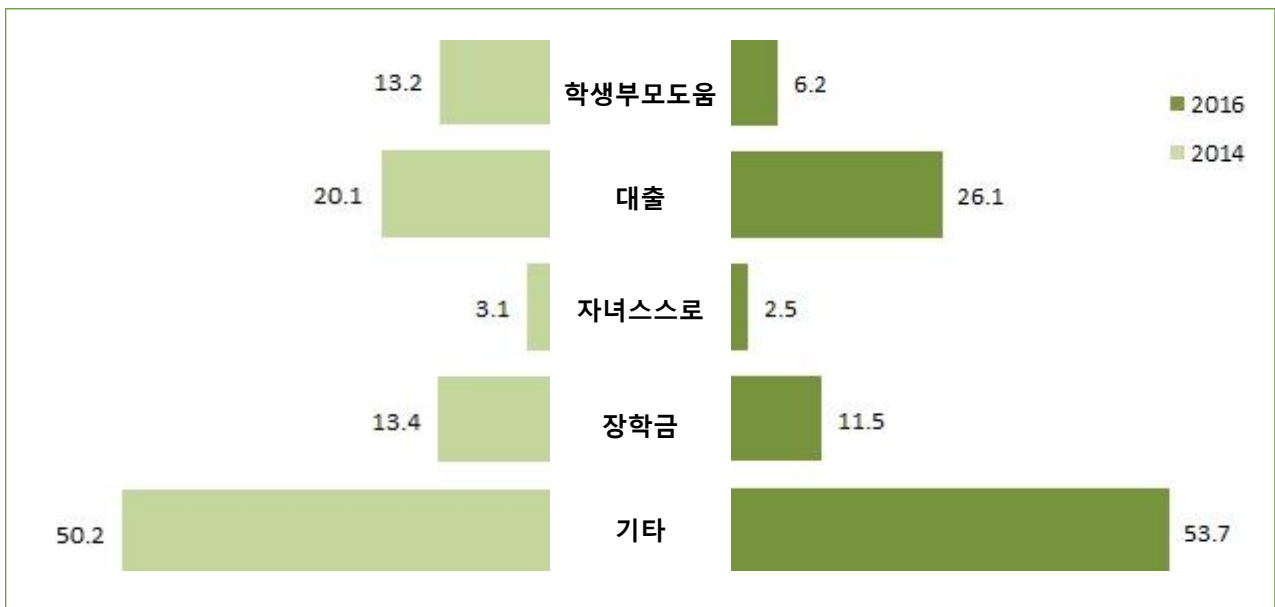
(단위 : 만원)

구분	미취학자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14	13.9	36.1	46.9	40.1
2016	14.8	36.5	43.8	39.9
(증감)	0.9	0.4	-3.1	-0.2
100만원미만	0.0	23.5	34.8	21.1
100~200만원	8.4	21.3	30.1	24.6
200~300만원	14.4	27.7	40.3	29.9
300~400만원	15.0	40.9	44.4	39.1
400~500만원	19.6	42.8	49.6	40.3
500만원이상	15.4	46.1	47.9	52.5

2-2.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

등록금 마련방법 : 「학생부모 도움」 53.7%, 「장학금」 26.1%, 「대출」 11.5%

-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으로는 「학생의 부모도움」 5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학금」 26.1%, 「대출」 11.5%의 순으로 나타남
- 2년전 대비 「학생의 부모도움」은 3.5%p 증가한데 비해 「대출」은 1.9%p 감소함
- 「학생의 부모도움」은 남학생은 55.8%인데 비해 여학생은 42.9%로 나타났고 「장학금」은 남학생 22.6%, 여학생 44.0%로 남학생의 부모의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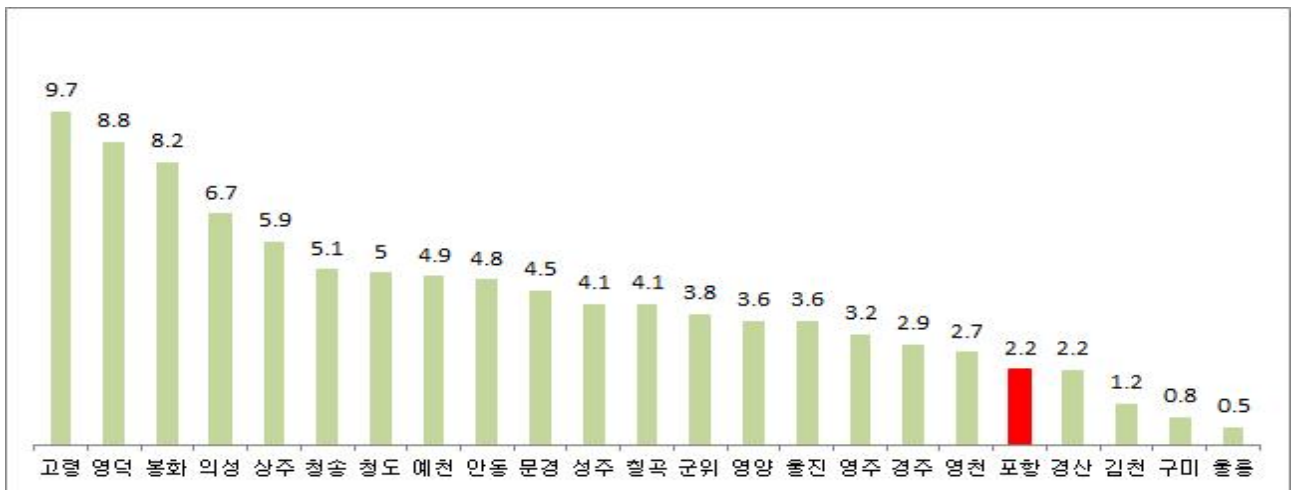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학생부모도움	대출	자녀스스로	장학금	기타
2014	50.2	13.4	3.1	20.1	13.2
2016	53.7	11.5	2.5	26.1	6.2
(증감)	3.5	-1.9	-0.6	6	-7
남	55.8	11.6	2.6	22.6	7.4
여	42.9	11.0	2.1	44.0	0.0
100만원미만	53.1	15.6	0.0	31.4	0.0
100-200만원	57.1	5.2	6.5	26.0	5.1
200-300만원	41.1	10.7	5.1	43.1	0.0
300-400만원	63.3	14.1	1.6	16.9	4.2
400-500만원	45.1	19.2	1.4	27.5	6.9
500만원이상	53.2	7.0	2.0	26.6	11.2

2-3. 문자해독율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문해인구는 96백명, 15세이상 447백명 2.2%를 차지하여 2년전에 비해 1.1%p 감소함

- 2년전에 비해 비문해인구는 51백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15세이상 인구의 비문해율은 1.1%p 감소한 2.2%로 나타남
- 포항의 비문해율은 경상북도 23개시군 중 하위권(20위)에 속하여 상대적으로 문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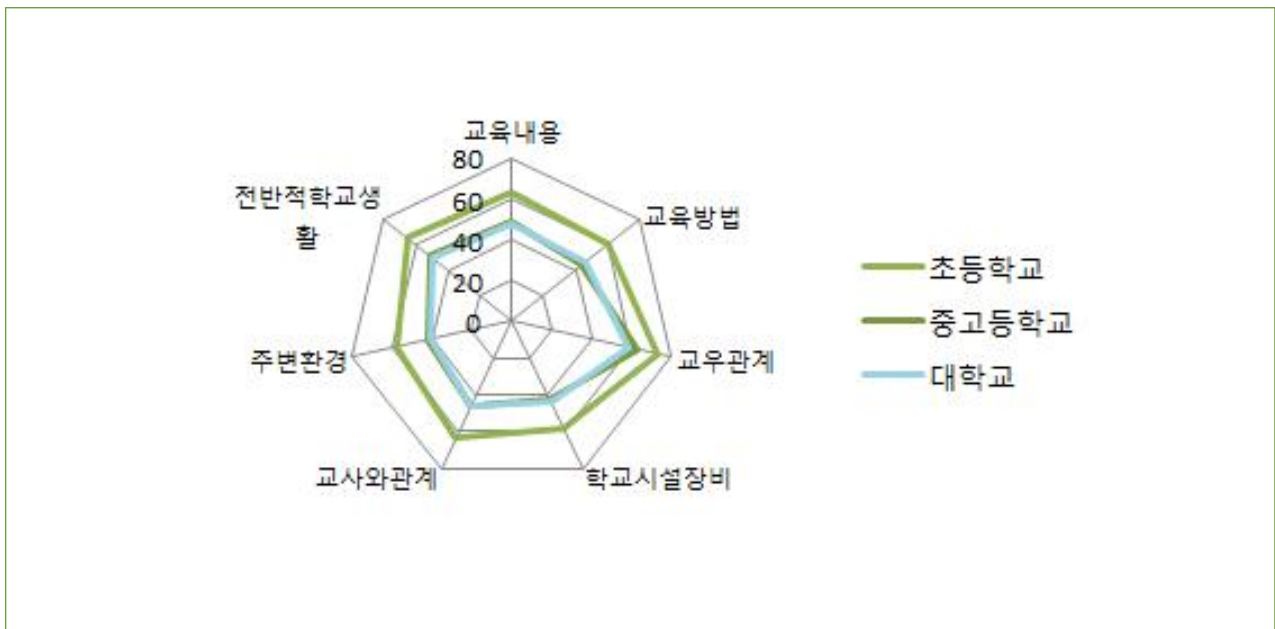
구분	비문해가구원수	15세이상인구	비문해율
2014	14,773	445,401	3.3
2016	9,691	447,470	2.2
(증감)	-5,082	2,069	-1.1
경주시	6,678	229,908	2.9
김천시	1,518	125,106	1.2
안동시	7,148	147,959	4.8
구미시	2,771	350,537	0.8
영주시	3,119	96,987	3.2
영천시	2,418	91,054	2.7
상주시	5,396	91,862	5.9
문경시	2,984	66,967	4.5
경산시	4,886	223,907	2.2
군위군	872	22,782	3.8
의성군	3,375	50,613	6.7
청송군	1,244	24,449	5.1
영양군	582	16,274	3.6
영덕군	3,174	35,923	8.8
청도군	2,045	40,657	5.0
고령군	2,994	31,011	9.7
성주군	1,699	41,649	4.1
칠곡군	4,235	104,349	4.1
예천군	2,034	41,740	4.9
봉화군	2,527	30,748	8.2
울진군	1,643	46,155	3.6
울릉군	46	9,266	0.5

2-4. 학교생활 만족비율*

* 만족비율 = “매우 만족한다” + “약간 만족한다”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비율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순으로 높음

- 「전반적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비율은 초등학교가 65.1%로 가장 높고 이어 중고등학교 50.8%, 대학교 50.1%의 순으로 나타나 대학교에 대한 만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는 「교우관계」에서 만족비율이 73.2%로 가장 높은 반면 「학교시설, 장비」는 5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고등학교는 「교우관계」 63.2%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만족비율이 50%미만 특히 「주변환경」은 41.6%를 기록하여 가장 낮음
- 대학교는 「교우관계」가 58.8%로 가장 높은 반면 「주변환경」은 40.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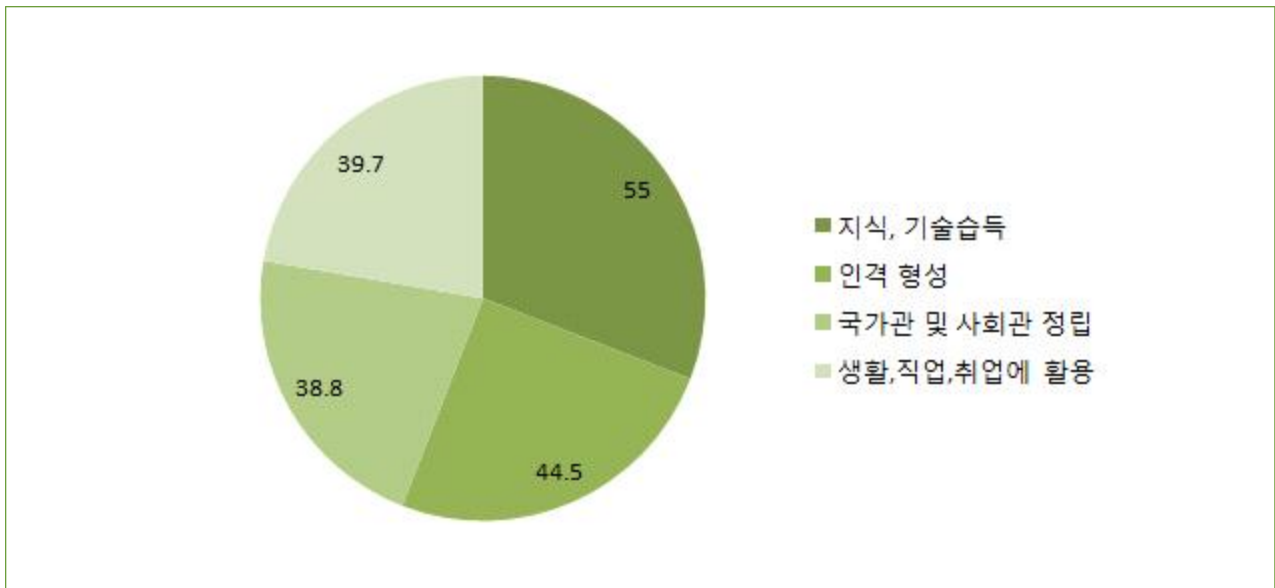
구분	교육내용 수준	교육방법	교우관계	학교시설 장비	교사와 관계	주변환경	전 반 적 학교생활
초등학교	63.2	59.9	73.2	57.9	63.1	58.0	65.1
중고등학교	48.7	43.8	63.2	42.3	45.5	41.6	50.8
대학교	47.6	46.6	58.8	44.0	46.5	40.7	50.1

2-5. 현재 학교교육의 효과*

* 효과있다= “매우 효과있다” + “약간 효과있다”

학교교육이 「지식·기술 습득」에 '효과있다'는 비율이 55.0%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에는 39.7%만이 '효과있다'고 응답

- 학교교육의 분야 중 「지식, 기술습득」에 현재 학교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0%,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4%로 나타남
- 「인격형성」에 현재 학교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5%,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6.5%로 나타남
-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에 현재 학교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8%,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6.9%로 나타남
-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에 현재 학교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7%,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6.6%로 나타남
-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 보다는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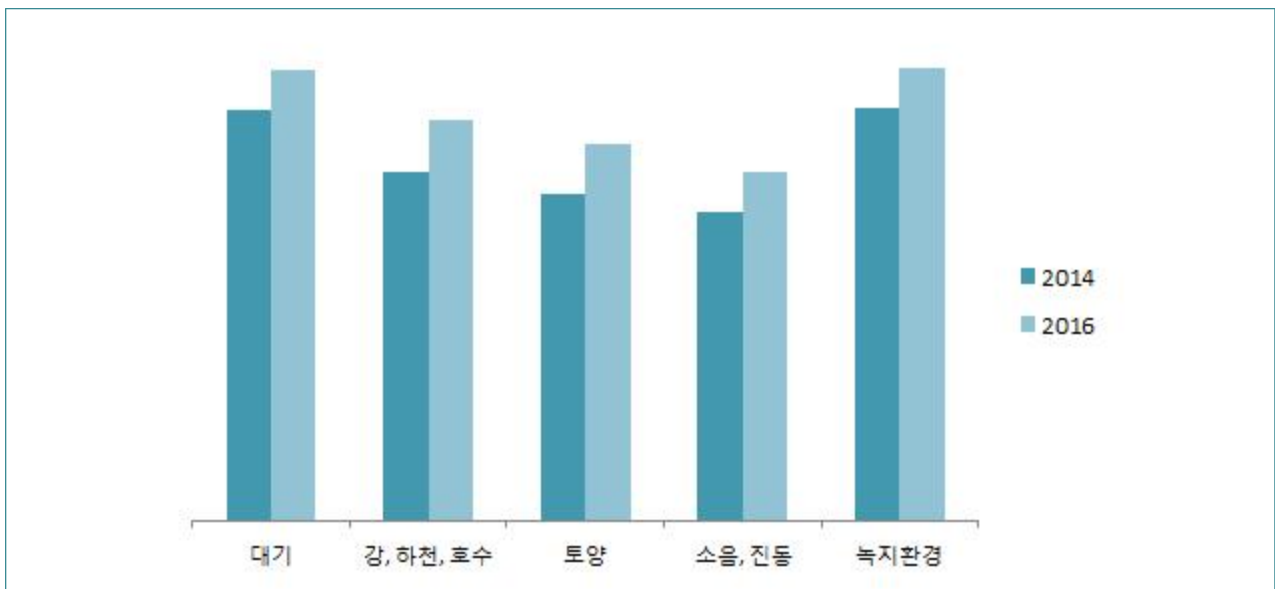
구분	지식, 기술습득		인격 형성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	
	효과있다	효과없다	효과있다	효과없다	효과있다	효과없다	효과있다	효과없다
2016	55.0	8.4	44.5	16.5	38.8	16.9	39.7	16.6
초졸이하	61.2	4.2	58.8	6.9	23.88	4.7	55.6	5.5
중졸	64.8	5.8	56.9	9.7	11.67	8.0	57.2	8.9
고졸	58.8	8.2	50.4	16.3	9.69	13.6	45.0	12.7
대졸이상	52.4	9.2	40.5	18.3	5.89	19.7	34.9	19.2

3. 환경

3-1.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에 대한 평가

대기, 강·하천·호수, 녹지환경 등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에 대해 2년전 대비 평가는 전체적으로 좋아짐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녹지환경」 42.5%, 「대기의 질」 42.3%, 「강·하천·호수의 질」 37.7%, 「토양」 35.4%, 「소음,진동」 32.7%의 순으로 나타남
- 2년전과 비교하면 좋아졌다는 비율은 「강·하천·호수의 질」 5%p, 「토양」 4.7%p, 「녹지환경」 3.8%p, 「대기의 질」 3.7%p, 「소음, 진동」 3.7%p의 순으로 증가해 환경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좋아짐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음,진동」 31.9%, 「강·하천·호수의 질」 26%, 「대기의 질」 25.8%, 「녹지환경」 24%, 「토양」 23.4%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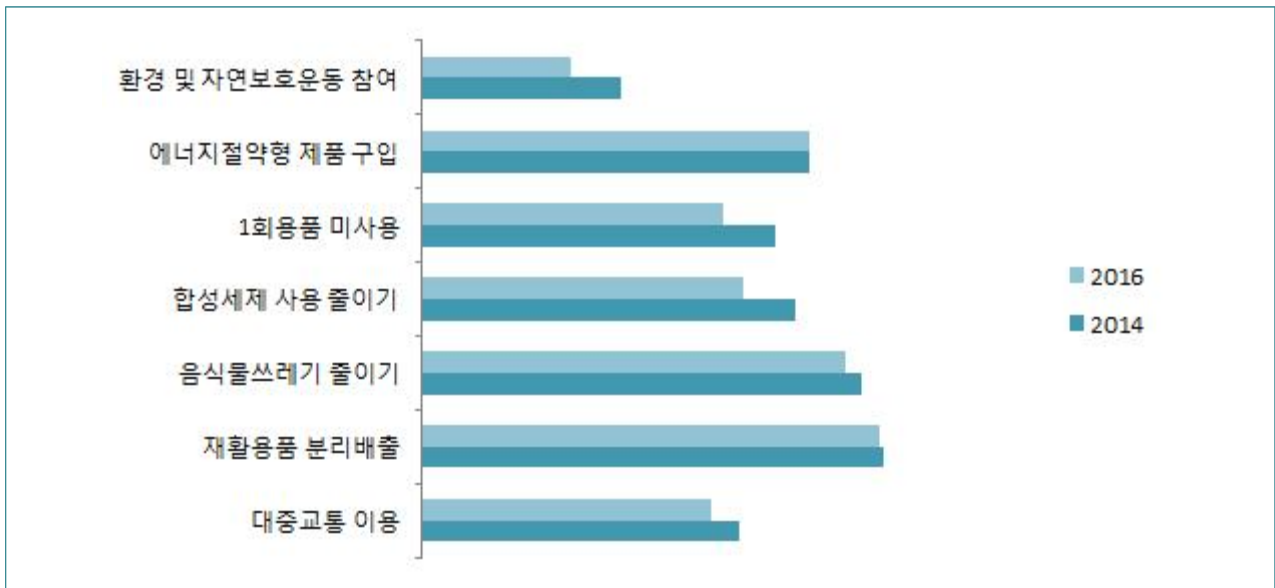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대기의 질		강, 하천, 호수의 질		토양		소음, 진동		녹지환경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2014	38.6	24.6	32.7	24.4	30.7	24.6	29.0	31.2	38.7	22.5
2016	42.3	25.8	37.7	26.0	35.4	23.4	32.7	31.9	42.5	24.0
(증감)	3.7	1.2	5	1.6	4.7	-1.2	3.7	0.7	3.8	1.5

3-2. 환경오염 방지노력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실천활동을 한다는 인구의 비율이 2년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포항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고 응답함

- 생활속 환경오염 방지노력 중에서 ‘노력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전체 75.7%가 응답
- 2년전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그중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1회용품 미사용」은 8.7%p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이어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가 8.3%p 감소함
-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은 활동으로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 43.9%, 「대중교통 이용」 25%의 순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p)

구분	대중교통 이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합성세제 사용줄이기	
	노력한다	노력않음	노력한다	노력않음	노력한다	노력않음	노력한다	노력않음
2014	52.5	19.1	76.2	3.7	72.5	4.6	61.7	6.8
2016	47.7	25.0	75.7	4.1	70.0	5.2	53.0	9.3
(증감)	-4.8	5.9	-0.5	0.4	-2.5	0.6	-8.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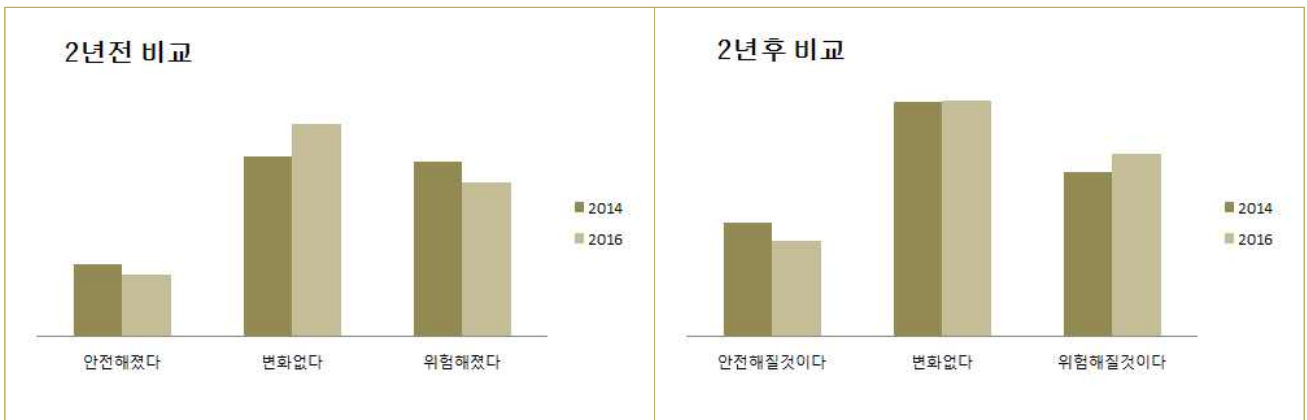
구분	1회용품 미사용		에너지절약형 제품 구입		환경및자연보호운동참여	
	노력한다	노력않음	노력한다	노력않음	노력한다	노력않음
2014	58.5	8.7	64.0	8.7	32.8	34.3
2016	49.8	11.6	64.1	9.3	24.5	43.9
(증감)	-8.7	2.9	0.1	0.6	-8.3	9.6

4. 안전

4-1. 우리사회의 안전상태 변화

안전이 2년전과 비교해 「변화없다」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향후에는 안정상태가 「위험해질 것이다」라는 비율은 증가하여 향후 우리사회의 안전상태에 대해 부정적

- 2년전과 비교하여 우리사회가 「안전해 졌다」는 비율은 14.4%이며 「위험해졌다」는 비율은 36.0%로 2년전과 크게 변화없음
 - 「안전해졌다(2.6%p)」 「위험해졌다(4.9%p)」 감소, 「변화없다(7.5%p)」 증가
- 2년후에 우리사회가 「안전해 질 것이다」는 응답비율은 18.6%인데 비해 「위험해 질 것이다」라는 비율은 35.6%로 앞으로 사회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봄
 - 2년전 응답자료와 비교해도 「안전해질 것이다」는 비율은 3.6%p 감소한데 비해 「위험해질 것이다」는 비율은 3.5%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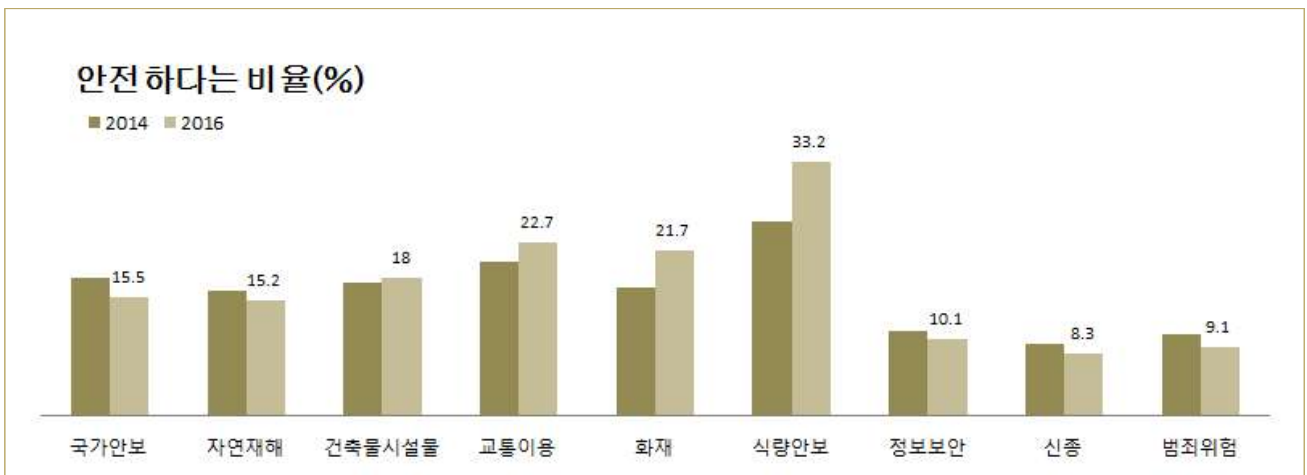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2년전과 비교			2년후 예상		
	안전해졌다	변화없다	위험해졌다	안전해질것이다	변화없다	위험해질것이다
2014	17.0	42.1	40.9	22.2	45.7	32.1
2016	14.4	49.6	36.0	18.6	45.8	35.6
(증감)	-2.6	7.5	-4.9	-3.6	0.1	3.5

4-2. 우리사회 분야별 안전상태 평가

우리사회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식량안보」, 「교통이용」, 「화재」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신종전염병」, 「범죄위험」, 「국가안보」의 순

- 도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식량안보」 > 「교통이용」 > 「화재」 > 「건축·시설물」 > 「국가안보」 > 「자연재해」 > 「정보보안」 > 「범죄위험」 > 「신종전염병」의 순
 - 2년전과 비교하여 ‘안전하다’는 비율이 증가한 분야는 「식량안보」 7.7%p, 「화재」 4.8%p, 「교통이용」 2.5%p으로 나타났고
 - ‘안전하다’는 비율이 감소한 분야는 「국가안보」 -2.5%p, 「범죄위험」 -1.6%p, 「자연재해」 -1.3%p으로 나타남
- 도민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신종전염병」 > 「범죄위험」 > 「국가안보」 > 「정보보안」 > 「자연재해」 > 「건축물시설물」 > 「화재」 > 「교통이용」 > 「식량안보」의 순
 - 2년전과 비교하여 ‘불안하다’는 비율이 증가한 분야는 「국가안보」 11.8%p, 「신종전염병」 11.2%p, 「범죄위험」 9.2%p으로 나타났고
 - ‘불안하다’는 비율이 감소한 분야는 「화재」 -4.5%p, 「식량안보」 -3.2%p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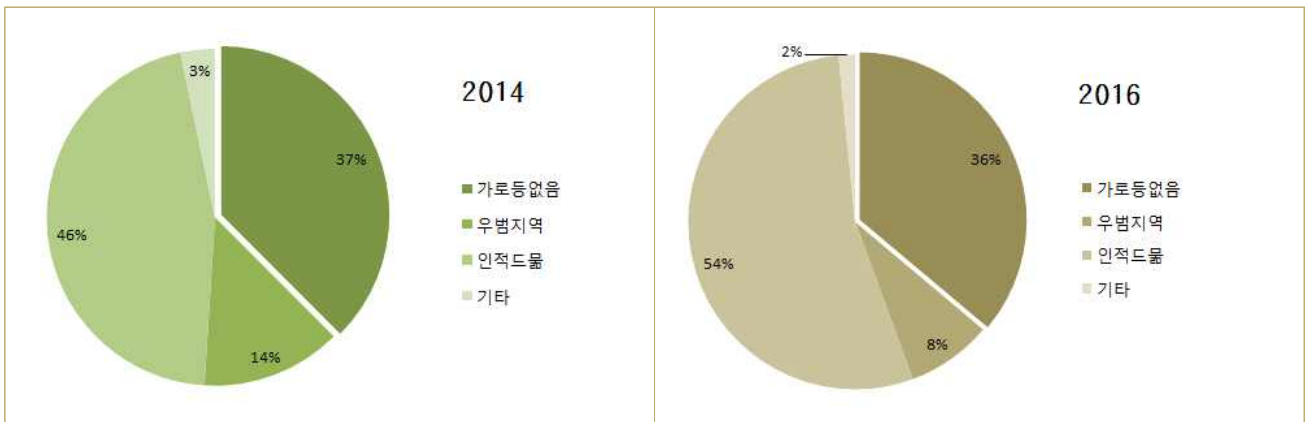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국가안보		자연재해		건축물 시설물		교통이용		화재		식량안보		정보보안		신종 전염병		범죄위험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2014	18	44	16.5	37.3	17.5	28.7	20.2	23.9	16.9	28.3	25.5	25.3	11.1	51.1	9.5	57.5	10.7	54.8
2016	15.5	55.8	15.2	44.5	18	30.6	22.7	23.4	21.7	23.8	33.2	22.1	10.1	54.9	8.3	68.7	9.1	64
(증감)	-2.5	11.8	-1.3	7.2	0.5	1.9	2.5	-0.5	4.8	-4.5	7.7	-3.2	-1	3.8	-1.2	11.2	-1.6	9.2

4-3. 야간보행의 두려움과 대처방법 ※ 야간보행의 두려움은 사회의 치안상태에 대한 국제적 통용지표.

‘야간보행에 두려운 곳이 있다’는 비율은 34.7%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인적 드물 (54%)」, 「가로등 미설치(36.1%)」, 「우범지역이므로(8.3%)」 등이 꼽힘

- ‘집근처에 야간보행이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7%로 2년전에 비해 증가
- 야간보행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여성」이 42.1%로 「남성(26.4%)」보다 많았고 연령대에서는 「30~39세」가 47.6%로 가장 높았음
- 2년전과 비교하면 「가로등 미설치」는 1.4%p, 「우범지역」 5.2%p 감소하였으나 「인적 드물」은 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야간보행이 두려울 경우 대처방법으로는 「그냥다님」이 62.5%로 가장 높고 이어 「피해다님」 13.0%, 「지인과 동행」 12.3%, 「택시이용」 10.5%, 「호신도구 소지」 0.4%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p)

구분	있음	가로등없음	우범지역	인적드물	기타
2014	28.7	37.5	13.5	45.7	3.3
2016	34.7	36.1	8.3	54.0	1.6
(증감)	6	-1.4	-5.2	8.3	-1.7
남	26.4	37.7	9.9	50.2	2.3
여	42.1	35.2	7.5	56.2	1.2
29세이하	42.0	40.4	8.6	50.6	0.4
30-39세	47.6	36.1	11.9	50.6	1.4
40-49세	42.1	39.9	7.7	51.6	0.8
50-59세	31.6	32.7	7.2	57.8	2.3
60세이상	25.6	32.8	7.1	57.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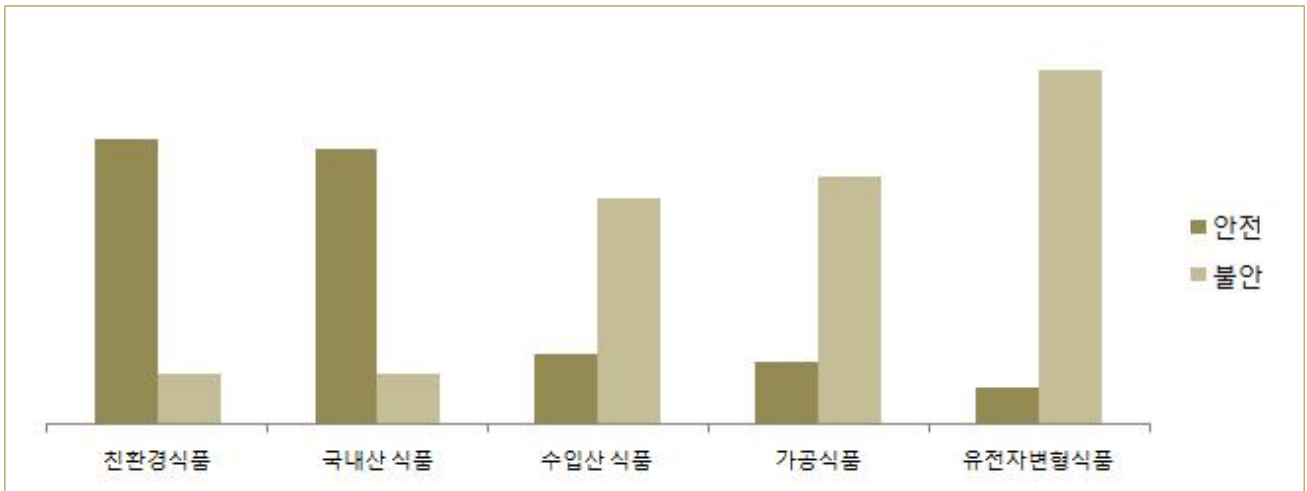
구분	그냥다님	피해다님	택시이용	호신도구소지	지인과동행	기타
2014	59.9	14.6	13.2	0.3	9.7	2.4
2016	62.5	13.0	10.5	0.4	12.3	1.4
(증감)	2.6	-1.7	-2.7	0.1	2.6	-1.0

4-4.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 안전하다 = 매우 안전하다 + 약간 안전하다 비율

수입산식품, 가공식품,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년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아 이들 식품에 대해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산 식품」 「가공식품」 「유전자 변형식품(GMO)」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년전과 마찬가지로 10%대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수입산 식품 등 식품전반에 걸쳐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감소함
- 「친환경식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졸이하 67.1%, 대졸이상 49.4%로 학력이 높을수록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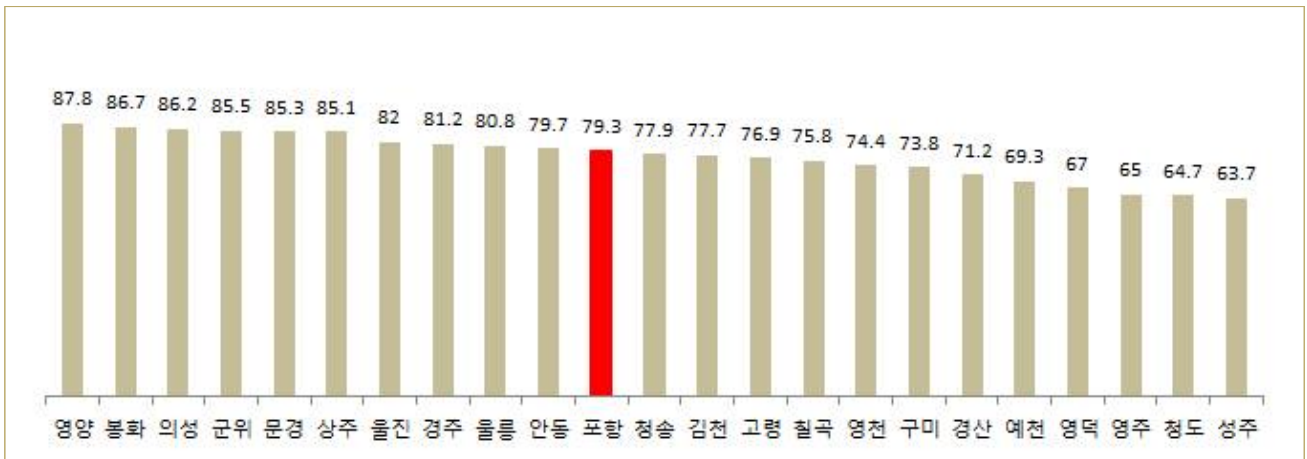
구분	친환경식품		국내산 식품		수입산 식품		가공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2014	47.9	12.8	41.6	14.4	6.3	55.9	6.2	54.0	3.2	67.7
2016	51.6	9.3	49.8	9.0	12.7	41.1	11.3	44.8	6.5	64.0
(증감)	3.7	-3.5	8.2	-5.4	6.4	-14.8	5.1	-9.2	3.3	-3.7
초졸이하	67.1	6.3	68.9	6.4	14.4	32.0	9.6	38.7	7.5	56.5
중졸	60.2	8.3	60.3	8.3	15.3	38.7	9.8	44.7	7.2	64.6
고졸	50.3	13.1	50.1	13.3	13.8	44.6	10.7	50.1	6.7	68.4
대졸이상	49.4	9.0	46.8	8.6	12.0	41.5	11.8	44.2	6.2	63.7

4-5. 도민들의 평소 준법수준*

* 법을 잘 지킨다 = 아주 잘 지킨다 + 비교적 잘 지킨다

'평소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는 비율은 79.3%로 높게 나타남

- 포항시민들의 평소 자기자신의 준법수준에 대해 '아주 잘지킴' 22.1%, '비교적 잘 지킴' 57.2%로 응답하여 잘 지킨다는 비율이 79.3%로 나타남
-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준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평균은 76.8%로 영양군이 가장 높고 성주군이 가장 낮으며 포항은 평균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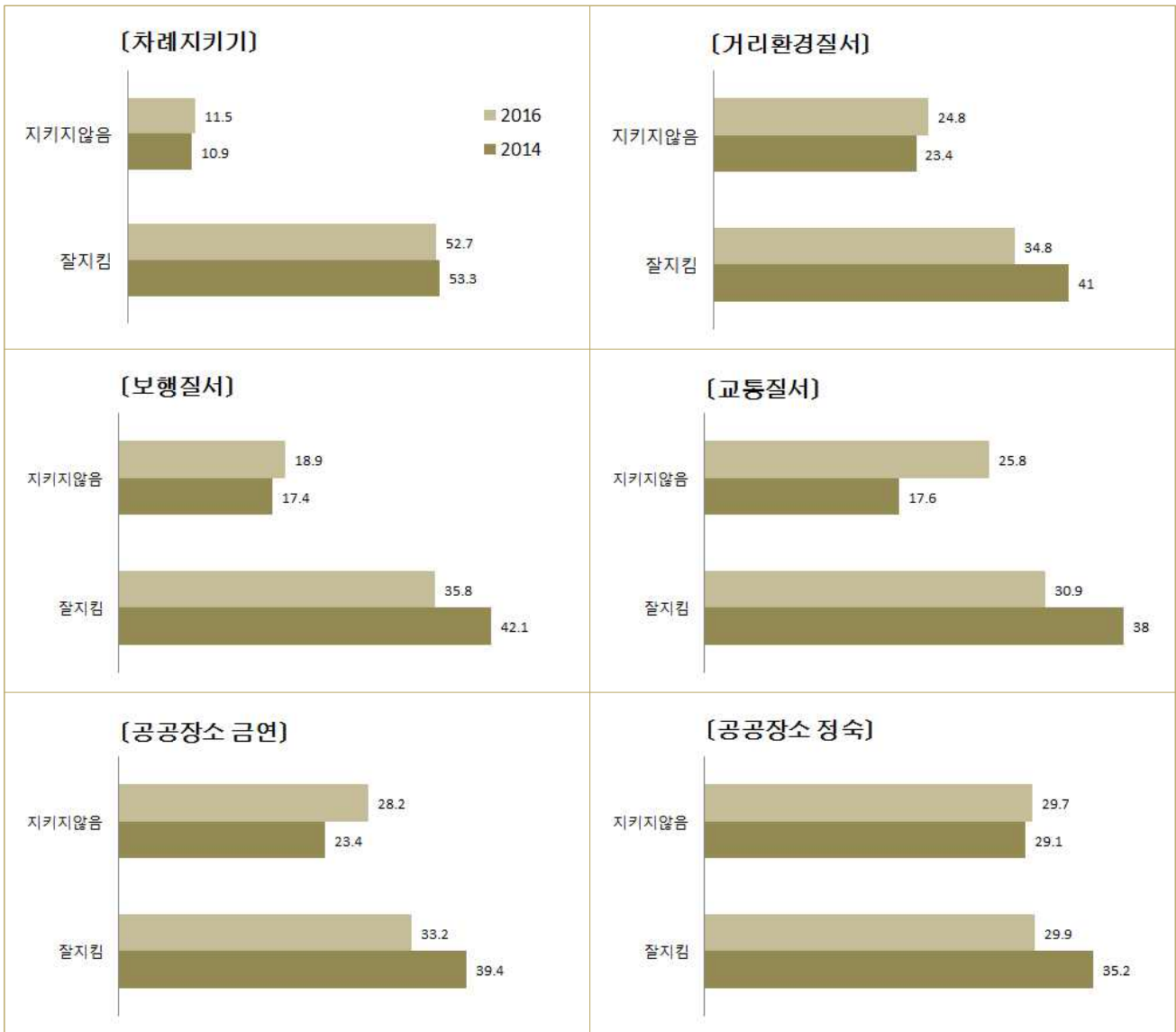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잘지킨다	보통	지키지않는편
2014	77.2	21.7	1.2
2016	79.3	19.2	1.6
(증감)	2.1	-2.5	0.4
경주시	81.2	18.2	0.6
김천시	77.7	21.5	0.9
안동시	79.7	20.0	0.2
구미시	73.8	25.0	1.1
영주시	65.0	34.1	0.9
영천시	74.4	25.2	0.3
상주시	85.1	14.4	0.5
문경시	85.3	14.2	0.5
경산시	71.2	27.6	1.3
군위군	85.5	13.9	0.5
의성군	86.2	13.5	0.3
청송군	77.9	21.7	0.4
영양군	87.8	11.8	0.4
영덕군	67.0	31.0	2.0
청도군	64.7	33.6	1.6
고령군	76.9	22.4	0.7
성주군	63.7	33.2	3.1
칠곡군	75.8	23.7	0.4
예천군	69.3	30.5	0.2
봉화군	86.7	13.1	0.2
울진군	82.0	17.4	0.6
울릉군	80.8	19.2	0.0

4-6. 우리 국민들의 공공질서 준수수준

차레지키기는 '잘 지킨다'고 응답한 비율이 52.7%로 높은 반면, 공공장소 정숙은 '잘 지킨다'고 응답한 비율이 29.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공공질서 수준에 대해 「차레지키기」는 '잘 지킨다'는 비율이 5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공공장소 정숙」 29.9%, 「교통질서」 30.9%로 나타남
- 2년전과 비교해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잘 지킨다'는 비율이 감소한 반면 '지키지 않는다'는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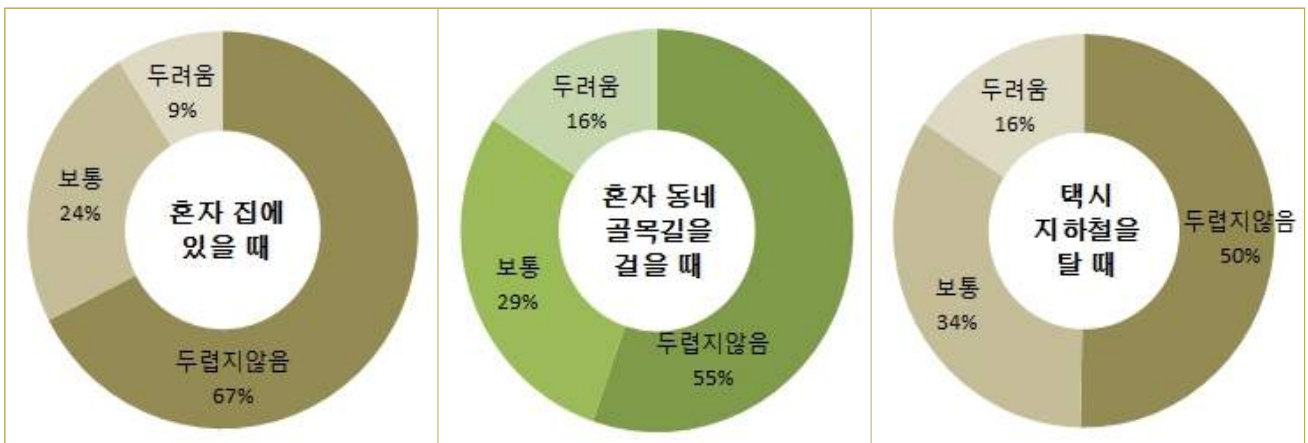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차레지키기		거리환경질서		보행질서		교통질서		공공장소 금연		공공장소 정숙	
	잘지킴	지키지 않음	잘지킴	지키지 않음	잘지킴	지키지 않음	잘지킴	지키지 않음	잘지킴	지키지 않음	잘지킴	지키지 않음
2014	53.3	10.9	41.0	23.4	42.1	17.4	38.0	17.6	39.4	23.4	35.2	29.1
2016	52.7	11.5	34.8	24.8	35.8	18.9	30.9	25.8	33.2	28.2	29.9	29.7
(증감)	-0.6	0.6	-6.2	1.4	-6.3	1.5	-7.1	8.2	-6.2	4.8	-5.3	0.6

4-7. 일상생활상 두려움

혼자 집에 있는 경우보다 혼자 골목길을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은 8.9%로 나타났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67.5%로 나타남
 - 남자 4.1%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 13.1%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
-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은 15.7%로 나타났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55.3%로 나타남
 - 남자의 7.2%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 23.2%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
- 「혼자 택시, 지하철을 탈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은 15.8%로 나타났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50.3%로 나타남
 - 남자 7.7%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 23.0%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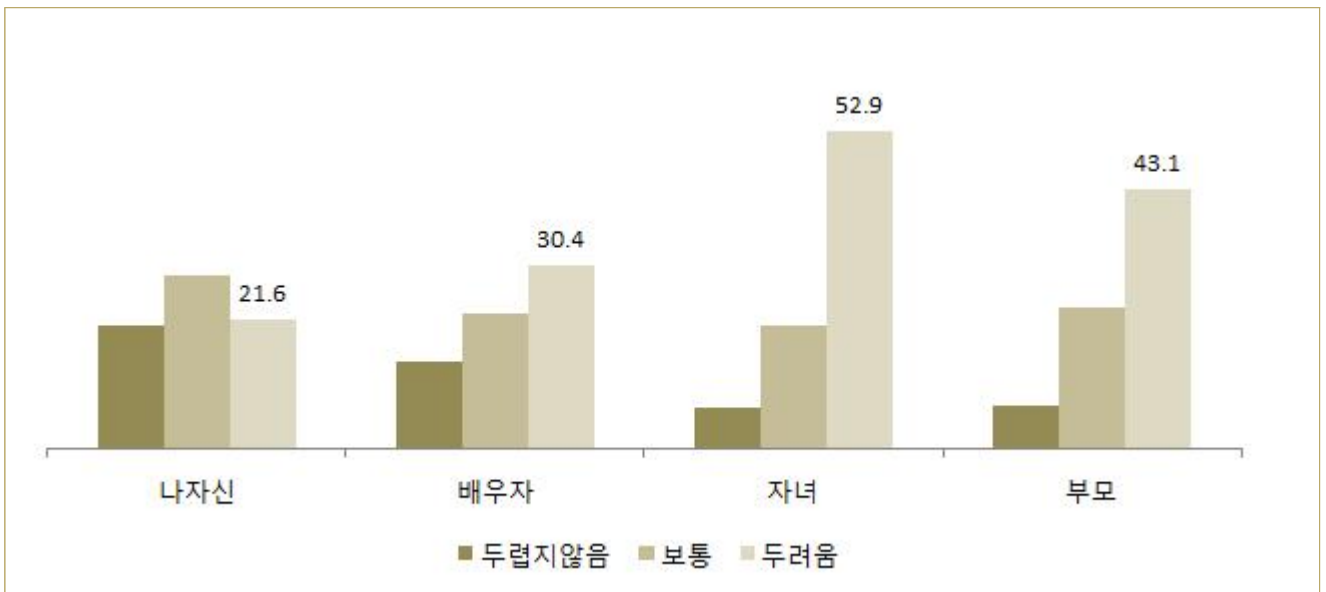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혼자 집에 있을 때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혼자 택시·지하철을 탈 때		
	두렵지않음	보통	두려움	두렵지않음	보통	두려움	두렵지않음	보통	두려움
2016	67.5	23.6	8.9	55.3	29.0	15.7	50.3	33.9	15.8
남	74.9	21.0	4.1	65.6	27.22	7.2	63.6	28.71	7.7
여	61.0	25.9	13.1	46.2	30.59	23.2	38.5	38.5	23.0

4-8. 범죄피해 대상별 두려움

자신보다는 자녀, 부모, 배우자의 순으로 범죄피해 발생을 두려워 함

- ‘주변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두려운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박적으로 ‘두렵다’는 비율이 ‘두렵지 않다’는 비율보다 크게 나타남
 - 「자녀」: ‘두렵지 않다’(5.5%) < ‘두렵다’(55.4%)
 - 「배우자」: ‘두렵지 않다’(13.4%) < ‘두렵다’(31.4%)
-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범죄발생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배우자」, 「자녀」, 「나자신」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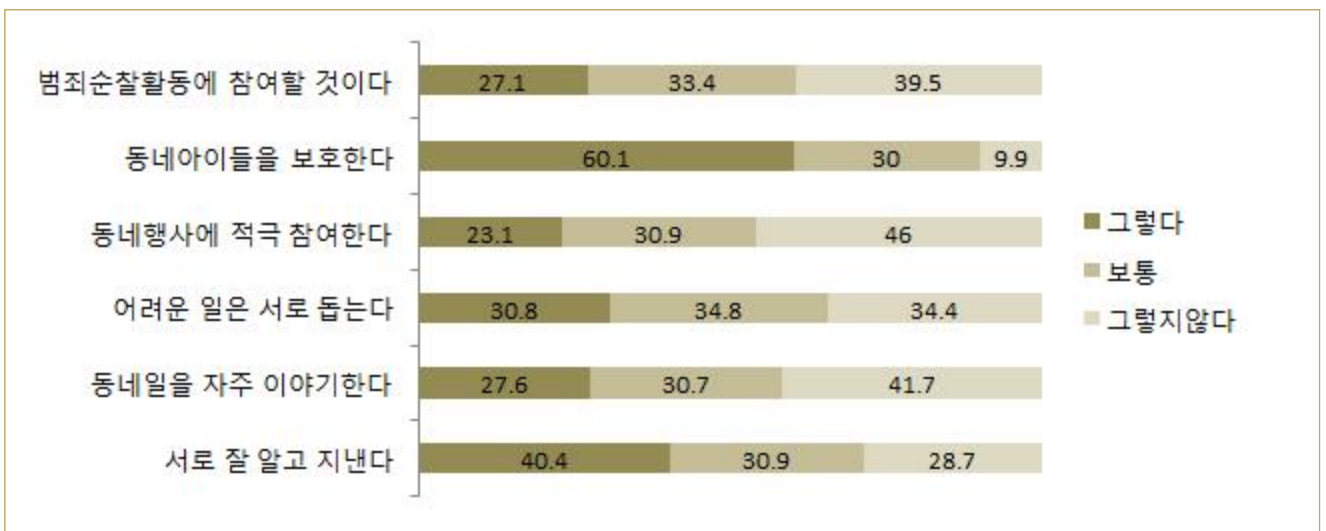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나자신			배우자			자녀			부모		
	두렵지 않음	보통	두려움	두렵지 않음	보통	두려움	두렵지 않음	보통	두려움	두렵지 않음	보통	두려움
2016	20.4	28.7	21.6	14.4	22.3	30.4	6.8	20.5	52.9	7.0	23.5	43.1
남	26.5	27.7	12.6	12.8	23.0	34.4	7.1	21.4	50.3	8.0	24.8	40.3
여	15.7	29.6	29.7	16.1	21.7	26.4	6.6	19.7	55.0	6.1	22.2	45.9
초졸이하	25.5	25.3	15.6	22.0	6.2	19.2	10.7	21.0	45.2	2.9	2.8	50.2
중졸	22.3	26.8	19.7	18.4	19.2	23.4	9.6	22.8	47.2	5.7	7.2	46.2
고졸	19.9	21.9	27.3	16.2	17.1	32.2	9.5	19.7	48.8	8.8	11.3	44.0
대졸이상	19.8	30.3	21.4	13.4	24.7	31.4	5.5	20.2	55.4	7.0	29.5	42.8

4-9. 동네 주민과의 관계

동네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낸다는 비율은 절반에 못미치는 40.4%로 나타남

- ‘동네일을 자주 이야기한다(27.6%)’,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30.8%)’, ‘동네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23.1%) 등 전반적으로 동네 주민과의 관계에 소극적인 반면 ‘동네아이들을 보호한다’는 60.1%로 반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함
- ‘범죄순찰활동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렇다」는 비율이 높음



(단위 : %)

구분	서로 잘 알고 지낸다			동네일을 자주 이야기한다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2016	40.4	30.9	28.7	27.6	30.7	41.7	30.8	34.8	34.4
남	36.7	30.1	33.3	24.5	28.9	46.6	27.9	33.4	38.7
여	43.7	31.7	24.6	30.3	32.3	37.4	33.4	36.0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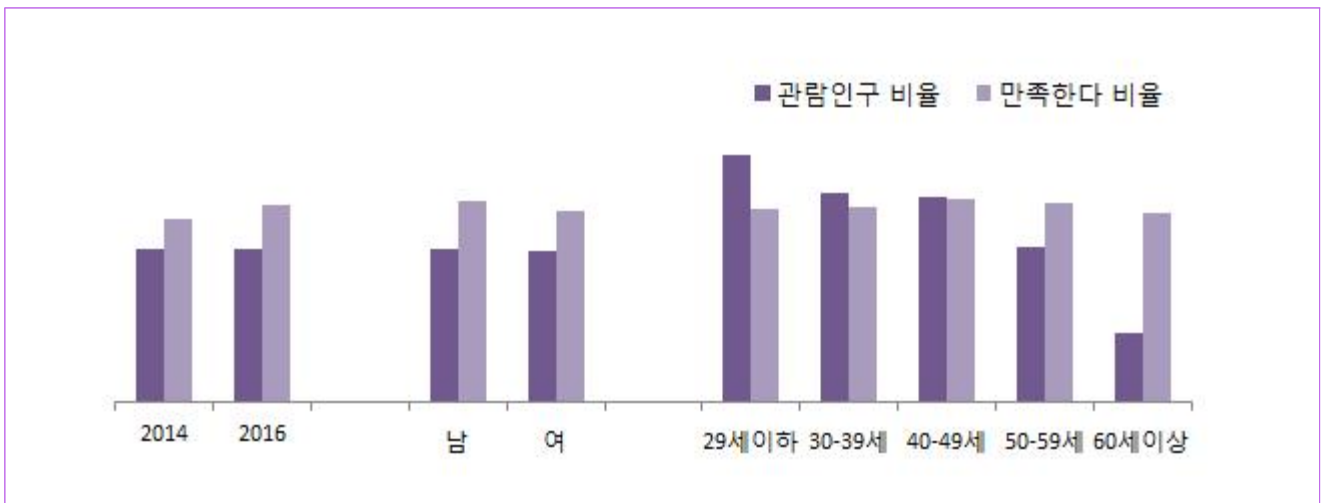
구분	동네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동네아이들을 보호한다			범죄순찰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2016	23.1	30.9	46.0	60.1	30.0	9.9	27.1	33.4	39.5
남	21.3	29.7	49.0	59.8	30.3	9.9	30.4	33.7	36.0
여	24.7	31.9	43.4	60.3	29.7	10.0	24.2	33.2	42.7

5. 문화와 여가

5-1. 공연 및 스포츠 관람경험 및 만족도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한 인구비율은 절반이 넘는 54.0%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한 인구비율은 54%로 포항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며 2년전(54.5%)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 54%, 여자 53.9%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9세이하」는 88%인데 비해 「60세이상」은 24.2%로 연령이 높을수록 떨어짐
- 관람한 공연 및 스포츠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69.7%로 나타나 만족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년전과 비교해도 4.5% 증가함
 - 만족도는 성별, 연령별로 모두 고르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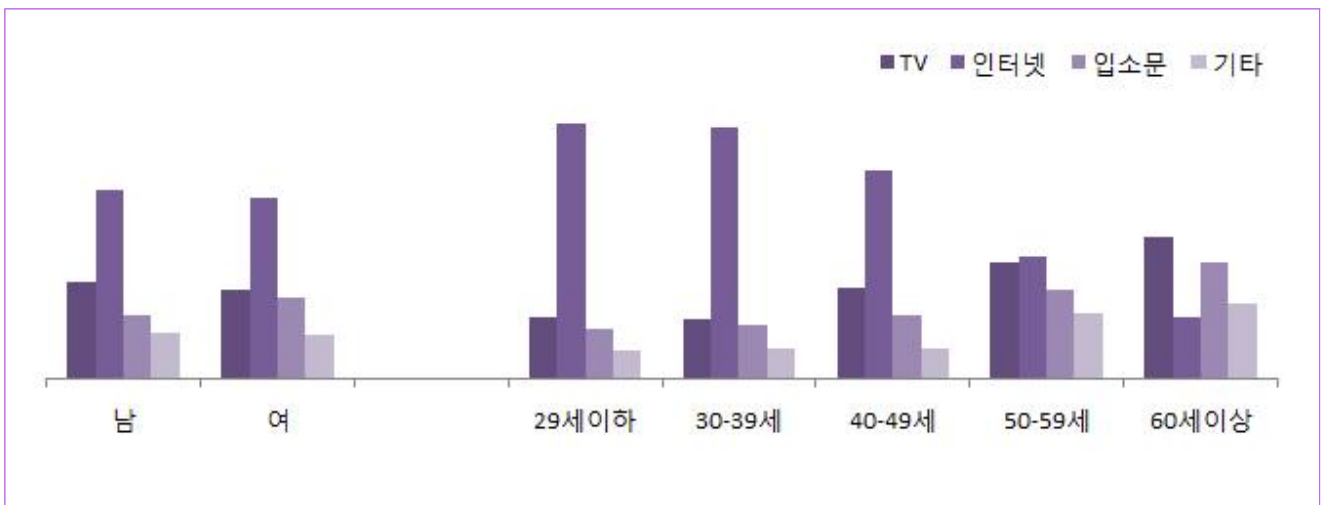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관람인구 비율	만족한다 비율
2014	54.5	65.2
2016	54.0	69.7
(증감)	-0.5	4.5
남	54.0	71.7
여	53.9	67.8
29세이하	88.0	68.3
30-39세	74.0	69.6
40-49세	72.5	71.8
50-59세	55.0	70.6
60세이상	24.2	67.3

5-2. 문화예술행사 정보입수 방법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입수 방법으로 「인터넷」 46.8%, 「TV」 23.6%, 「입소문」 18.5%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인터넷」은 남자 47.8%, 여자 45.9%로 나타났는데 비해 「입소문」은 남자 15.9%, 여자 20.7%로 나타나 여자들이 조금더 입소문 의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인터넷」은 29세이하 65%, 60세이상 15.7%로 나타났는데 비해 「입소문」은 29세이하 12.6%, 60세이상 29.5%로 나타나, 젊은 층은 「인터넷」을 노년층은 「입소문」을 통해 정보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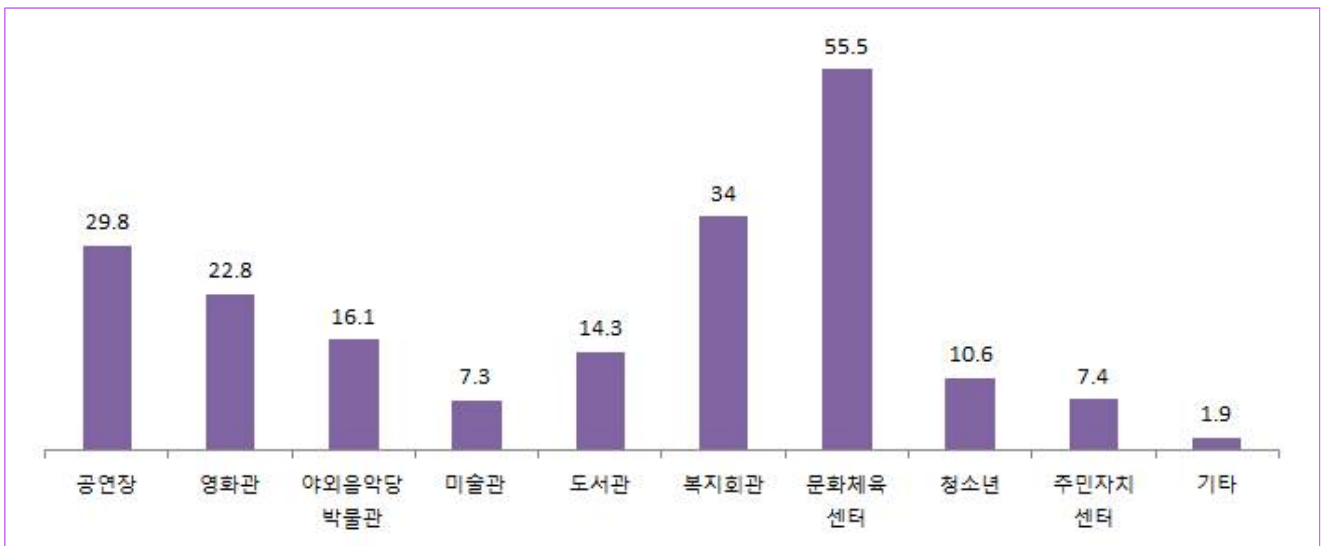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TV	인터넷	입소문	기타
2014	27.5	43.2	16.8	2.1
2016	23.6	46.8	18.5	11.2
(증감)	-3.9	3.6	1.7	9.1
남	24.8	47.8	15.9	11.5
여	22.5	45.9	20.7	10.9
29세이하	15.4	65.0	12.6	7.1
30-39세	15.1	63.9	13.4	7.7
40-49세	23.1	53.2	16.2	7.5
50-59세	29.7	31.1	22.8	16.5
60세이상	36.0	15.7	29.5	18.9

5-3. 문화예술시설 수요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로 전연령층에서는 문화체육센터가, 20대이하는 공연장, 60대이상은 복지회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살고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시설로는 「문화체육센터」 55.5%로 가장 높고 이어 「복지회관」 34%, 「공연장」 29.8%의 순
 - 문화체육센터를 제외하고
 - 29세이하는 「공연장」 38.1%, 「영화관」 35.5%, 「도서관」 20.2%의 순
 - 60세이상은 「복지회관」 57.5%, 「공연장」 21.5%, 「영화관」 16.6%의 순
- 2년전과 비교하여 영화관, 미술관,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요는 증가하였고 야외음악당 박물관, 도서관,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주민자치센터의 수요는 감소하였음



(단위 : %, %p)

구분	공연장	영화관	야외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주민자치센터	기타
2014	29.3	14.2	16.7	5.2	18.8	38.2	61.0	6.4	9.0	1.1
2016	29.8	22.8	16.1	7.3	14.3	34.0	55.5	10.6	7.4	1.9
(증감)	0.5	8.6	-0.6	2.1	-4.5	-4.2	-5.5	4.2	-1.6	0.8
남	27.7	23.3	15.3	6.4	15.4	32.7	58.0	11.6	8.1	1.3
여	31.7	22.3	16.7	8.1	13.3	35.2	53.4	9.7	6.8	2.5
29세이하	38.1	35.5	19.7	10.4	20.2	7.3	44.9	18.9	1.3	3.7
30-39세	42.7	25.9	21.3	9.4	18.7	14.7	52.1	11.3	2.5	1.3
40-49세	30.0	25.2	17.0	7.8	19.4	19.8	59.5	15.5	4.1	1.5
50-59세	30.7	21.4	17.4	7.4	15.4	34.9	54.5	9.1	7.5	1.5
60세이상	21.5	16.6	11.6	5.2	7.2	57.5	59.2	5.7	13.1	2.0

5-4. 지난 1년간 여행경험

지난 1년간 관광목적 국내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인구의 절반인 57.1%이고,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전체의 17.9%으로 2년전에 비해 4.9%p 증가함

- 지난 1년간 관광목적 국내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전체 인구의 57.1%이고 이중 69.5%는 1회 평균 2.4일의 숙박여행을 다녀옴
 - 2년전과 비교해서 국내여행 경험자는 6.9%p 증가하였고 숙박여행 비율도 1.1%p 증가 하였으나 당일여행 횟수는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여행 경험비율은 가구소득 규모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은 지난 1년간 국내여행 경험비율이 32.4%인데 비해 월평균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78.6%로 나타남
- 해외여행 경험비율은 17.9%로 2년전에 비해 4.9%p 증가하였고, 도평균 1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도내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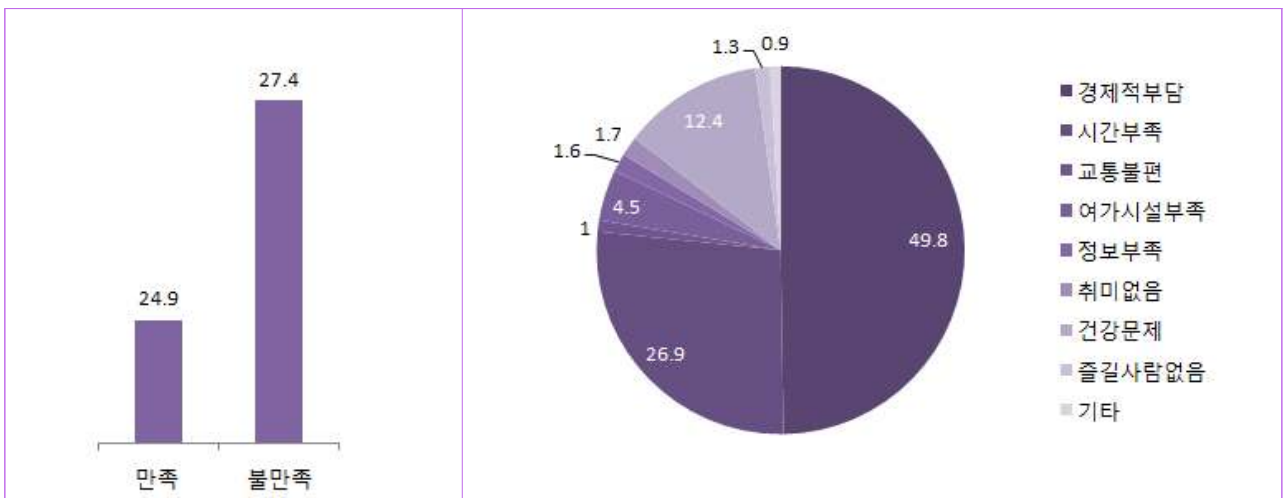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국내여행 경험				해외여행 경험					
	있다	숙박 여행	1회당 평균일수	당일여행 횟수	있다	관광	가사	업무	교육	향후 계획있다
2014	50.2	69.5	2.4	4.8	13	82.7	8.3	12.4	3.2	35.0
2016	57.1	70.6	2.5	3.3	17.9	90.8	7.1	7.8	2.3	42.1
(증감)	6.9	1.1	0.1	-1.5	4.9	8.1	-1.2	-4.6	-0.9	7.1
100미만	32.4	45.6	2.6	2.1	11.4	86.9	12.3	2.0	5.5	11.4
100-200	40.9	53.0	2.8	3.0	31.0	90.4	10.2	2.5	2.1	31.0
200-300	61.5	65.0	2.7	3.3	41.2	88.6	9.1	9.2	3.8	41.2
300-400	65.3	72.7	2.4	3.2	64.6	84.1	6.9	16.9	3.0	64.6
400-500	66.6	79.1	2.6	3.4	56.8	87.2	7.4	13.7	3.3	56.8
500이상	78.6	81.9	2.3	4.6	54.2	83.1	5.8	20.6	2.6	54.2

5-5. 여가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시 그 이유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인구는 전체의 27.4%이고,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시간부족, 건강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힘

- 평소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인데 비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7.4%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평소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49.8%, 「시간부족」 26.9%, 「건강문제」 12.4%, 「여가시설부족」 4.5%의 순으로 나타남
 - 29세이하는 「시간부족」 45.9%의 비율이 가장 높음
 - 60세이상은 「경제적부담」 51.2%, 「건강문제」 30.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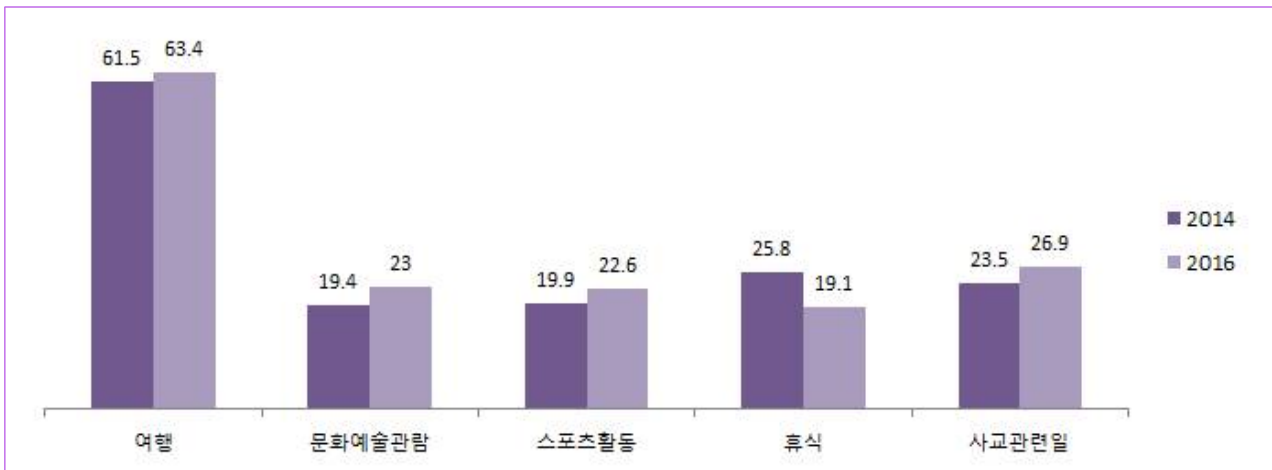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불만족 사유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불편	여가 시설 부족	정보 부족	취미 없음	건강 문제	즐길 사람 없음	기타
전연령	24.9	27.4	49.8	26.9	1.0	4.5	1.6	1.7	12.4	1.3	0.9
29세이하	27.1	27.6	39.3	45.9	0.7	4.9	3.2	1.9	1.6	0.7	1.9
30-39세	27.4	30.2	45.5	35.0	0.7	10.1	3.6	1.3	1.2	0.7	1.8
40-49세	26.4	25.8	54.2	35.3	1.6	4.0	1.3	0.7	1.6	1.0	0.5
50-59세	26.2	26.3	53.2	29.9	1.9	4.6	2.0	2.9	4.2	1.0	0.4
60세이상	21.6	27.7	51.2	11.1	0.5	2.5	0.0	1.6	30.5	2.2	0.6

5-6. 희망 여가시간 활용방법

전체의 절반이상이 시간 및 경제적 여유가 주어질 때 여가활동으로 「여행」을 희망

- (향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여가활동으로는 「여행」 63.4%, 「사교관련일」 26.9%, 「문화예술관람」 23%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여행」 65.7%, 「스포츠활동」 32.9%, 「사교관련」 24.2% 등을 선호하였고, 여자는 「여행」 61.3%, 「사교관련」 29.4%, 「문화예술관람」 25.9% 등을 선호
- 연령대별로 29세이하는 「여행」 54.8%, 「문화예술관람」 37%, 「스포츠활동」 26.3% 순으로 선호하는데 비해 60세이상은 「여행」 57.1%, 「사교관련일」 40.4%, 「휴식」 22.8% 등을 선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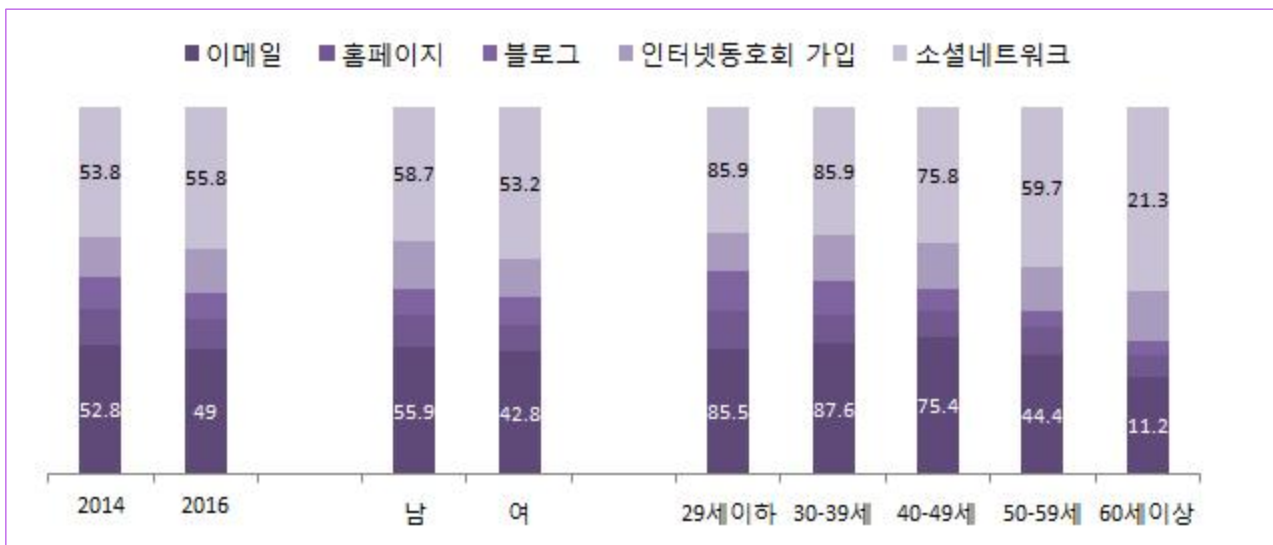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여행	문화예술관람	스포츠활동	휴식	사교관련일
2014	61.5	19.4	19.9	25.8	23.5
2016	63.4	23.0	22.6	19.1	26.9
(증감)	1.9	3.6	2.7	-6.7	3.4
남	65.7	19.8	32.9	17.0	24.2
여	61.3	25.9	13.5	20.9	29.4
29세이하	54.8	37.0	26.3	19.3	16.4
30-39세	67.9	26.5	28.8	16.6	15.6
40-49세	72.5	28.2	31.9	15.6	20.2
50-59세	68.4	23.2	24.9	17.2	23.6
60세이상	57.1	13.7	13.0	22.8	40.4

5-7. 정보화의 활용

포항 인구의 49%가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고, 인구의 55.8%는 소셜네트워크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남

- 「이메일(을) 보유」 한 인구는 전체의 49%, 「홈페이지 보유」 11.5%, 「블로그 보유」 10.4%, 「인터넷 동호회 가입」 17.4%, 「소셜네트워크 가입」 55.8%의 순
- 「이메일 보유」는 남자 55.9%, 여자 42.8%로 남자의 보유율이 높고, 연령별로는 29세이하는 85.5%인데 비해 60세이상은 11.2%로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율이 낮아짐
- 「인터넷동호회 가입」은 남자 21.5%, 여자 13.6%로 남자의 가입율이 높았고, 연령 대별로는 30~39세가 29세이하를 제치고 3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셜네트워크가입」은 남자 58.7%, 여자 53.2%로 남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29세이하 85.9%로 가장 높고 60세이상은 21.3%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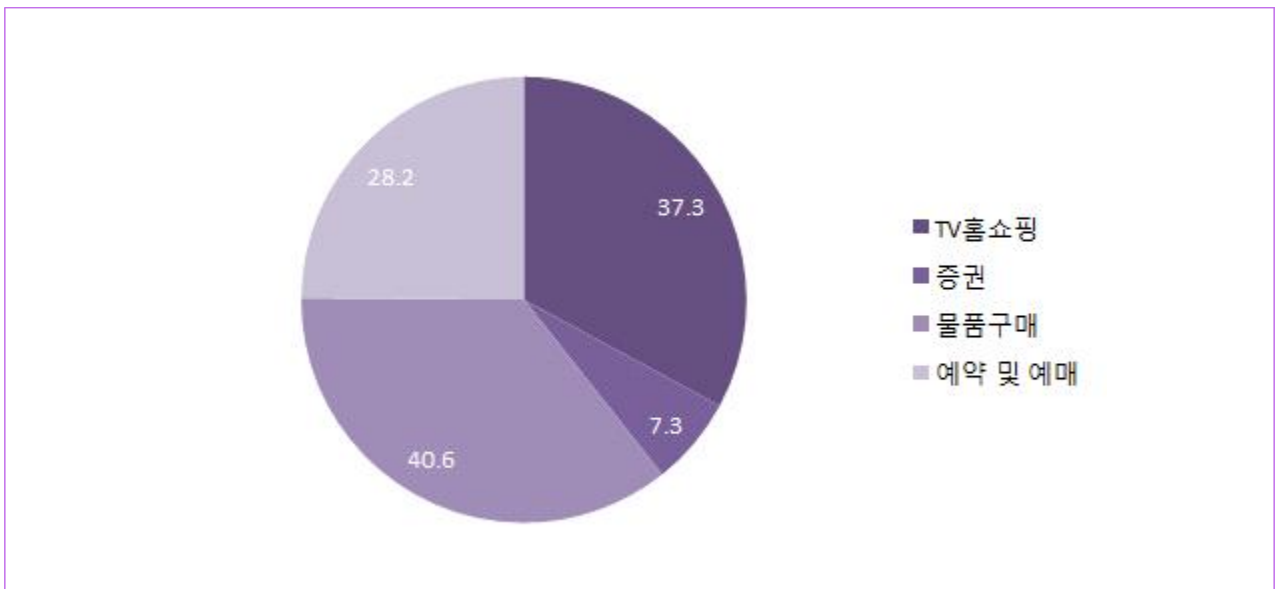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이메일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동호회 가입	소셜네트워크
2014	52.8	15.3	12.9	16.4	53.8
2016	49	11.5	10.4	17.4	55.8
(증감)	-3.8	-3.8	-2.5	1	2
남	55.9	13.7	11.5	21.5	58.7
여	42.8	9.5	9.4	13.6	53.2
29세이하	85.5	24.9	27.2	26.0	85.9
30-39세	87.6	19.7	22.6	31.4	85.9
40-49세	75.4	15.0	12.3	24.7	75.8
50-59세	44.4	10.2	6.2	16.3	59.7
60세이상	11.2	2.7	1.4	6.0	21.3

5-8. 전자상거래 활용

인터넷,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중 「물품구매」 비율 39.5%로 가장 높음

-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경험에 대해 「물품구매」는 전체의 39.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어 「TV홈쇼핑」 38%, 「예약 및 예매」 32.8%, 「증권」 7.9%의 순으로 나타남
- 2014년에 비해 「예약 및 예매」는 4.6%p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이어 「TV 홈쇼핑」 0.7%p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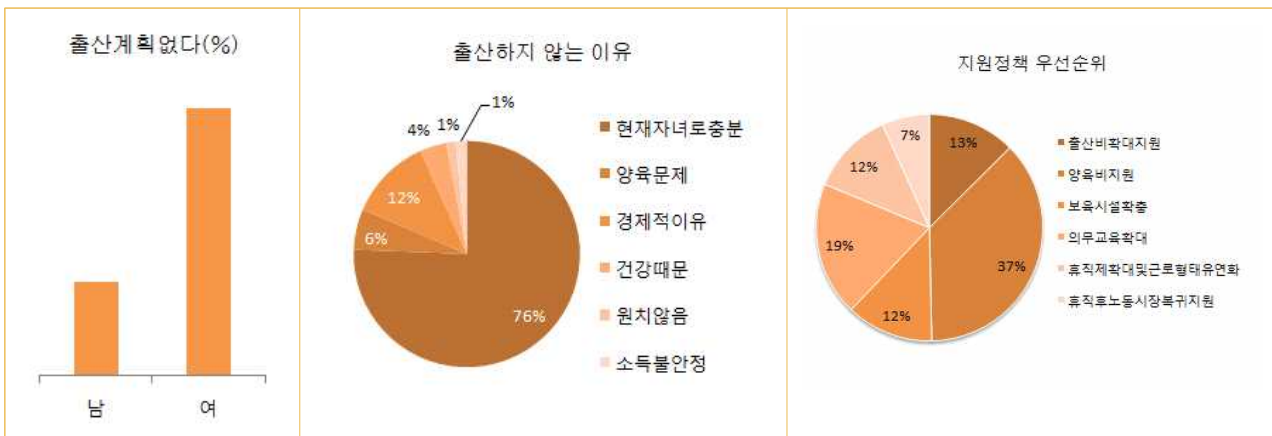
구분	TV홈쇼핑	증권	물품구매	예약 및 예매
2014	37.3	7.3	40.6	28.2
2016	38.0	7.9	39.5	32.8
(증감)	0.7	0.6	-1.1	4.6
남	28.5	11.8	36.8	32.3
여	46.5	4.6	41.8	33.2
29세이하	25.7	3.0	57.8	54.3
30-39세	63.0	12.9	73.4	66.1
40-49세	62.5	14.1	63.8	54.4
50-59세	47.2	11.1	38.3	25.3
60세이상	15.4	2.9	8.8	6.4

포항시 특성항목

6-1. 출산계획 및 필요한 지원정책

기혼 50세미만 응답자 중 향후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자녀로 충분해서 다음으로 경제적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출산계획이 없다’는 비율은 남성(81.9%) 보다 여성이 85.4%로 높게 나타남
-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자녀로 충분해서(75.5%)」 「경제적이유(11.8%)」 「양육문제(5.8%)」 「건강때문(3.8%)」 순
- 출산계획이 없어도 출산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률(89.8%)은 높았으며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양육비지원」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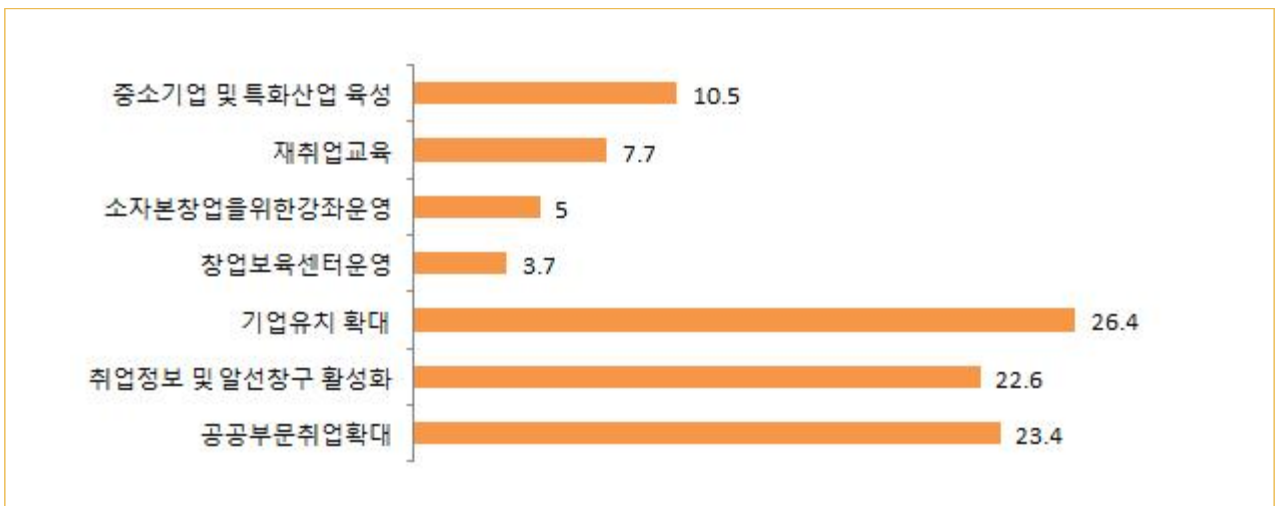
구분	출산계획 없다	출산하지않는 이유					
		현재자녀로 충분	양육문제	경제적이유	건강때문	원치않음	소득불안정
2016	83.8	75.5	5.8	11.8	3.8	1.3	1.6
남	81.9	74.4	6.3	12.8	3.7	1.0	1.6
여	85.4	76.2	5.4	11.0	3.8	1.5	1.6
100만미만	68.5	51.2	15.1	18.0	0.0	15.7	0.0
100-200만	72.3	58.5	8.3	29.9	0.0	0.0	3.4
200-300만	86.1	74.0	8.3	14.2	2.4	1.2	0.0
300-400만	77.9	74.9	5.4	15.9	0.0	1.1	2.8
400-500만	82.6	75.2	6.1	9.6	6.0	0.9	1.1
500만이상	90.3	83.3	2.8	6.1	6.7	0.0	1.3

구분	출산정책 필요하다	우선되어야 할 정책					
		출산비 확대지원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	의무교육 확대	휴직제확대및근 로형태유연화	휴직후노동 시장복귀지원
2016	89.8	12.0	35.5	11.9	18.3	11.4	6.5

6-2. 일자리창출 정책 우선순위

일자리창출 정책 중 가장 우선순위로 꼽는 것은「기업유치확대(26.4%)」로 나타남

- 일자리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유치확대(26.4%)」에 이어 「공공부문 취업확대(23.4%)」 「취업정보 및 알선창구 활성화(22.6%)」 순
- 「기업유치확대」는 전연령 및 학력에서 고르게 필요성을 나타낸 반면 「공공부문 취업확대」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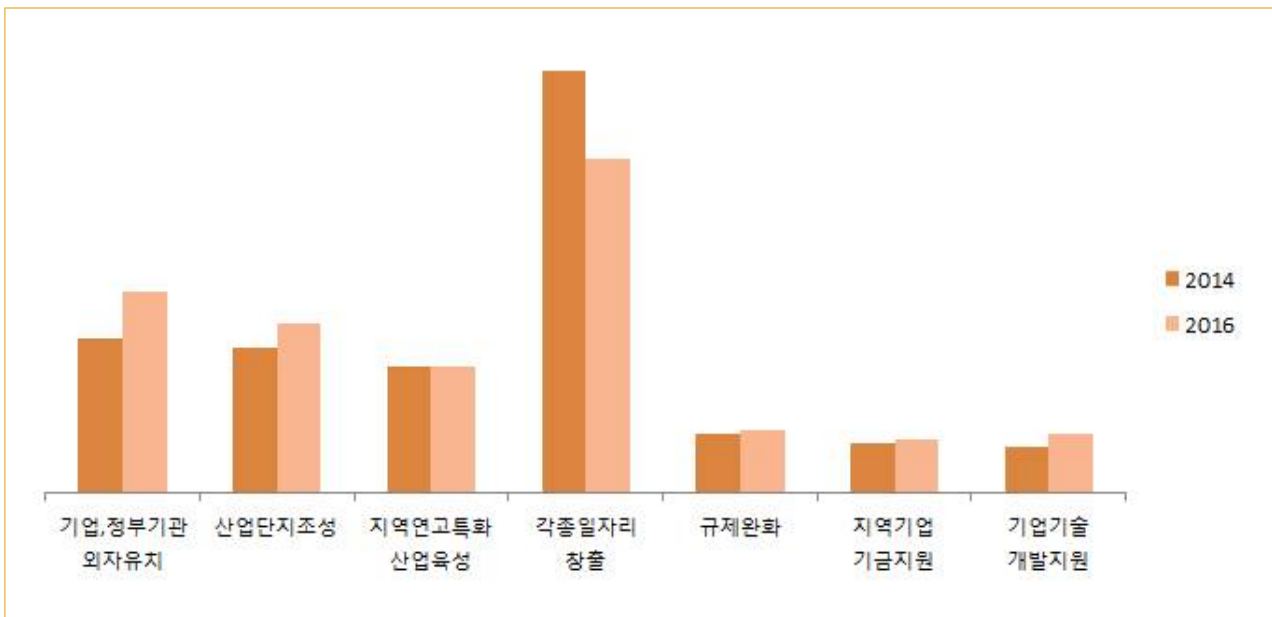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공공부문 취업확대	취업정보 및 알선창구활성화	기업유치 확대	창업보육센터 운영	소자본창업을 위한강좌운영	재취업교육 운영	중소기업 및 특화산업육성
2016	23.4	22.6	26.4	3.7	5.0	7.7	10.5
29세이하	14.9	32.0	25.3	6.4	4.1	5.4	11.0
30-39세	11.9	28.0	26.3	4.9	5.9	10.7	10.2
40-49세	16.1	27.2	22.7	4.2	5.6	8.9	14.5
50-59세	18.7	21.8	28.6	2.9	5.8	9.9	12.0
60세이상	37.1	15.4	27.4	2.4	4.3	5.5	7.4
초졸이하	54.1	11.1	21.8	1.5	2.5	3.9	3.3
중졸	44.0	14.4	26.1	3.0	2.9	3.6	5.2
고졸	28.7	18.2	31.0	2.2	6.3	5.0	8.6
대졸이상	17.1	25.4	25.9	4.1	5.4	9.1	12.1

6-3.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2년전과 동일하게 「일자리창출」이 66.1%로 1순위를 차지함

- 「일자리창출」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나 2년전 보다는 응답 비율이 17%p 감소하였고 「기업·정부기관·외자유치(39.8%)」는 9.3%p 증가
- 「일자리창출」에 이어 「기업·정부기관·외자유치(39.8%)」 「산업단지조성(33.4%)」 「지역연고 특화산업 육성(25.2%)」 「규제완화(12.4%)」 순
- 연령, 교육정도, 경제활동,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응답비율이 고르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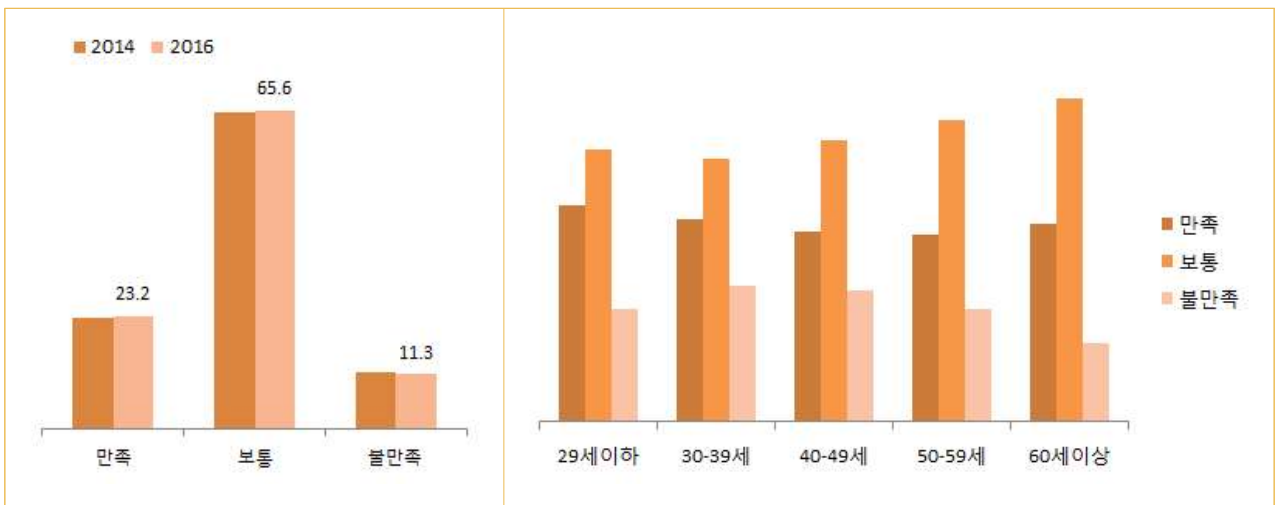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기업·정부기관 외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지역연고 특화산업육성	각종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지역기업 기금지원	기업기술 개발지원
2014	30.5	28.7	25.1	83.7	11.6	10.0	9.0
2016	39.8	33.4	25.2	66.1	12.4	10.7	11.7
(증감)	9.27	4.75	0.13	-17.66	0.82	0.70	2.69

6-4. 포항시 생활에 대한 주관적만족도

포항시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32.8%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 「만족한다」는 비율은 32.8%, 「만족하지 않는다」는 17.8%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2년전과 비교해도 9.6%p 증가
-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29세이하 35.9%이며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고졸이 34.7%, 가구소득은 400~500만원 미만인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곳은 연령 30~39세, 대졸 이상, 소득 200~3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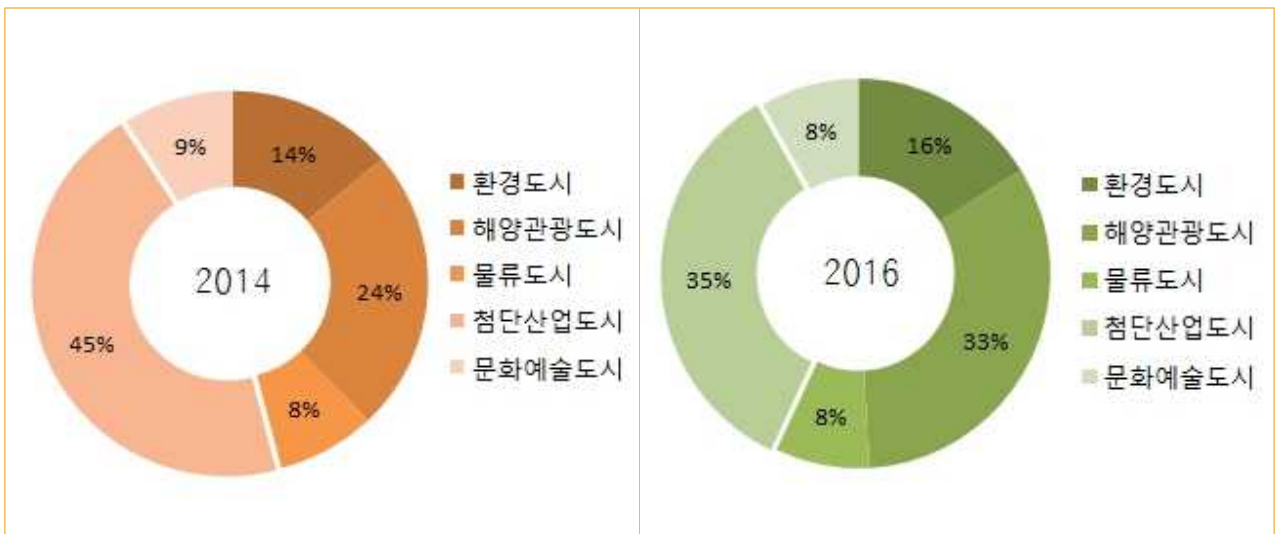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2014	4.6	18.4	65.3	8.6	3.0
2016	4.7	18.5	65.6	8.4	2.9
(증감)	0.2	0.1	0.3	-0.2	-0.1
29세이하	3.56	32.38	45.2	15.59	3.27
30-39세	2.91	30.76	43.62	19.02	3.7
40-49세	2.26	29.29	46.67	18.81	2.97
50-59세	2.93	28.24	50.2	15.83	2.79
60세이상	3.39	29.58	53.85	10.76	2.42
초졸이하	0.88	29.65	59.16	8.24	2.08
중졸	4.86	29.29	55.65	8.85	1.35
고졸	3.67	31.07	48.76	12.47	4.03
대졸이상	2.77	29.6	47.84	16.81	2.98

6-5. 포항 미래의 도시상

포항 미래의 도시상으로는 2년전과 동일하게 「첨단산업도시」로 나타났으나 「해양관광도시」와 크게 격차 없음

- 포항 미래의 도시상으로 「첨단산업도시(34.6%)」 「해양관광도시(32.9%)」 「환경도시(16.1%)」 「문화예술도시(8.3%)」 「물류도시(7.9%)」 순으로 나타남
- 2년전과 비교해 「첨단산업도시」가 10%p 감소한 반면 「해양산업도시」는 9.1%p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
- 연령, 교육정도,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고른 응답비율을 보임



(단위 : %, %p)

구분	환경도시	해양관광도시	물류도시	첨단산업도시	문화예술도시
2014	13.8	23.8	8.1	44.6	9.1
2016	16.1	32.9	7.9	34.6	8.3
(증감)	2.3	9.1	-0.2	-10.0	-0.8
29세이하	14.39	26.95	4.91	36.57	16.46
30-39세	18.57	33.6	5.82	31.11	10.64
40-49세	14.42	33.48	7.79	38.34	5.96
50-59세	15.61	31.15	11.26	32.77	8.97
60세이상	16.98	35.46	7.61	34.28	5.33
초졸이하	21.01	30.32	6.59	34.22	6.93
중졸	14.04	36.97	8.03	35.9	4.76
고졸	18.39	33.11	8.31	34.23	5.76
대졸이상	15.75	32.27	7.85	34.43	9.42